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제337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국토부,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꼬리표' 댄다 6

현대차·기아-중바이두, 커넥티드카 전략적 동맹 9

코스피(26일 전주대비) 2656.33 (+64.47P)  
코스닥 856.82 (+14.91P)  
환율(달러당 원화) 1375.30 (-6.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531% (+0.063%p)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잡는다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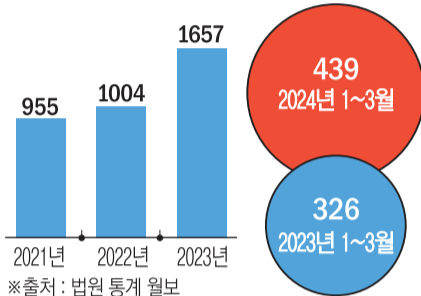
### 기업이 쓰러진다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 전자주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들어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1996년 대구 이현공단에서 설립된 M전자는 창사 초창기 아시아 외환위기를 견뎠다.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 조공장을 이전하며 연매출 150억 원, 종업원 150명 규모로 사세를 키웠다.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이는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만기 연장과 이자감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아가며 연명하던 한계회사에 대한 호흡기가 떴진 상황이다. 도산하는 기업이 폭증하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운영 중인 법원은 광주와 대구 2곳을 추가, 전국 5대 권역에서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실제 광주·대구 지역에선 법인 회생을 비롯해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법인파산 접수 (단위: 건)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17배 ↑  
올해 1분기 누적건수 35% 늘어

회생법원, 전국 5개 권역 확대  
"기존청사에 회생조직 先투입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에서 65.0%로 17배 급격히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올해 1분기 누계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6건을 34.7% 넘어섰다.

기업대출 잔액도 지난해 1900조 원에 육박해 한계기업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89조6000억 원(은행권 1350조5000억 원, 비은행권 539조1000억 원)에 달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법인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법원은 기업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파산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권역별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광주 및 대구에 추가 회생법원 설치가 논의될 만하다"며 "청사를 짓고 판사도 뽑는 등 회생법원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법원 입장에서 기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 중 일부에 회생법원 조직을 넣어서라도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생이란 말처럼 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는다. 도산기업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접수→개사→인가→중결'로 이어지는 진행 단계마다 사건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불확실성에 빠진 경제 주체들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 '5대 권역 회생법원' 확충을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법원 내 고심이 일한다.

▶2면에 계속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김이현 기자 spes@·전이현 기자 cahyun@



더위 씻는 신나는 물놀이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도를 나타내는 등 전국이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LG엔솔 '특허 무임승차' 철회 글로벌 법정에 중소기업 세우나

업계, 소송 대상 中배터리업체 지목  
특허 침해 발생국가서 訴 제기 유력  
ITC·PCA 등 통해 절차 진행할 듯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배터리 경쟁 업체에 대한 본격 소송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4면

28일 산업계 관계자들은 LG엔솔이 특허 침해 소송을 예고한 대상으로 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는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주도권 경쟁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LG엔솔이 '특허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쓰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이미 특허 침해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한국계 배터리 기업 3사(LG엔솔·SK온·삼성SDI)보다 시장 점유율에서 앞선다.

중국 CATL과 BYD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8.9%에서 지난해 52.7%로 증가한 반면, 국내 기업은 24.5%에서 23.5%로 줄었다.

이번 소송 대상 기업이 중국 기업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소송이 진행될 국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특허 관련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국가 또는 침해한 기업의 소속 국가에서 이어진다. 이번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을 나서는 기업이 증거를 직접 모아 공개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르다.

2019년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 유출했다'며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LG엔솔 손을 들어줬다. 앞서의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당시 소송에서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었던 만큼 이번 소송 역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LG엔솔은 ITC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등에 특허침해 소송 및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이름만 붙어도 수십억...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스페셜 리포트

주택시장 포화에 신시장 개척 활발  
구체적 기준 없이 가격 인상 지적도

건설업계가 특화설계, 명품마감재 등을 앞세우며 '하이엔드(high-end·최고급)' 브랜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별화 없이 브랜드만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사들이 출범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들이 최초 론칭(2013년) 이후 11년 차에 접어들면서 새 브랜드를 론칭하는 건설사들 역시 증가 추세다.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건설사들은 기존 주택 브랜드와 함께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브랜드 전략은 기존 기업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경쟁우위를 잡기 위한 업

주요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

(단위: 곳) ※출처: 각사

건설사명	브랜드명	적용 단지 수
DL이앤씨	아크로	16
대우건설	푸르지오써밋	15
현대건설	디에이치	10
롯데건설	르엘	7
SK에코플랜트	드파인	6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4

계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대형사들이 보유한 하이엔드 브랜드로는 DL이앤씨 '아크로(ACRO)', 현대건설 '디에이치(THE H)', 롯데건설 '르엘(LE | EL)', 대우건설 '푸르지오써밋(PRUGIO SUMMIT)',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HAUTERRE)', SK에코플랜트 '드파인(DEFINE)' 등이 있다.

이 중 선발주자는 DL이앤씨다. 1999년 '도곡동아크로빌'에 아크로를 주상복합 브랜드로 최초 적용했다. 이후 2013년 '아크로리버파크'를 분양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포지셔닝했다. 현재까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크로 타워스퀘어 등 총 16곳의 단지에 아크로를 적용해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

사 중 가장 많은 지역에 깃발을 꽂았다. 이어 2014년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써밋을 출범하고 하이엔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 △용산 푸르지오 써밋 등 총 15개 단지에 하이엔드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2015년 디에이치를 론칭하며 하이엔드 시장에 합류했고, 하이엔드 후발주자인 롯데건설은 2019년 르엘을 론칭하며 정비사업 시장 정조준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각각 드파인과 오티에르를 론칭했다.

이 중 전체 수주 단지에서 강남3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의 르엘은 7개 단지 중 6개 단지가 서초와 강남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어 디에이치는 전체 10개 중 8개 단지가 강남3구에 안착했다. 아크로는 16개 중 6개가 강남권에 자리를 잡았다.

하이엔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조합조차 입찰 및 가계약 단계에서도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EUV 기술 보유 글로벌 광학기업〉

# 獨자이스 찾은 JY... “첨단 반도체 장비 동맹 꾀걸음”

## 삼성전자, 해외 네트워킹 강화

이재용, 부품생산공장 살피고 파운드리·메모리 경쟁력 위해 EUV·반도체 장비 협력 논의 자이스는 한국R&D거점 구축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주도해 TSMC 점유율 격차 줄이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을 찾아 극자외선(EUV) 관련 기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해외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칼람프레이트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이스 본사 방문



이재용(앞줄 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 책임자(CTO),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 반도체 생산 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동행했다.

자이스는 첨단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

상 보유한 글로벌 광학 기업이다.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EUV 장비 1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은 3만 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이스 경영진과 반도체 핵

심 기술 트렌드 및 양사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자이스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최신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생산되는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자이스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EUV 기술 및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자이스는 2026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에 R&D 거점을 마련하면 양사의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EUV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nm=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시장을 주도

하고, 연내 EUV 공정을 적용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오피디아에 따르면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은 지난해 74억 달러에서 2026년 331억 달러로 연평균 6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1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자이스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 개선 △생산 공정 최적화 △수율 향상을 달성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확고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기술 우위 지속 △고객사 다변화 △선제적 R&D 투자 △과감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주요 회사를 방문, 글로벌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피터 베닝 ASML CEO, 젠스 황 엔비디아 CEO, 호아킨 두아토 J&J CEO, 크리스토퍼 비에버허 바이오젠 CEO 등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 Energy Up, Tomorrow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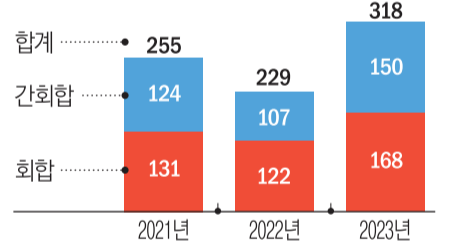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접수 (단위: 건)

▶1면서 계속  
팬데믹 부양책 종료·고금리 영향  
파산·회생법원 증가=경기침체  
'경제 구조 개혁' 기회로 삼아야



이날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유형별 건수 추이는 △2021년 간회합(간이회생합의) 124건·회합(회생합의) 131건(합계 255건) △2022년 107건·122건(229건) △지난해 150건·168건(318건)이었다.

간회합 사건 비중은 2021년 48.6%, 2022년 46.7%, 작년 47.2%에 달한다. 회합 사건 비율은 51.4%, 53.3%, 52.8%로 각각 절반씩 엇비슷한 수준이다. 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회사가 관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회합'이란 사건명을 부여받고 부채가 30억 원 미만이면 간이 회생 절차에 해당, '간회합'으로 분류된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경원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2023년께 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 부양책 종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코로나19로 급변한 시장 적응은 물론 매출 회복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낸 것은 2019년 12월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결

과' 보고서를 낸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관할은 서울 소재 법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에서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최다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은 2021년 35.6%, 2022년 34.6%, 지난해 3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관련 사건을 나눠 처리한 영향이 크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파산이나 회생 법원이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는 우려가 커지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구조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총정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인식이 강해 파산·회생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채권신고 등 절차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채권자 권리를 행사해야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너도나도 “최고급 단지”… 희소성 ‘뚝’ 시공사·조합 갈등 ‘쑥’

## 하이엔드 아파트 부작용 속출

서울 강남·한강 주변서 벗어나  
비강남권·광역시로 영토 확장

“3.3㎡ 당 공사비 1000만원도”  
곳곳서 수주 포기·계약 해지

적용 기준 물어보니 “영업기밀”  
“공사비 올려받는 꼼수” 시선도



디에이치 클래스트 스카이라이프 ‘골든 게이트’.

사진제공 현대건설

건설업계가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 확산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고급화 바람이 수년째 거세게 불면서 각 사 최고급 브랜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희소성이 떨어지고 공사비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에 적용된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는 주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서울 비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엔드의 저변확대, 약일까? 독일까? = 서울 강남지역 이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는 부산 우동3구역과 광주 광천동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부산 축진3구역과 중동5구역, 광주에선 신가동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을 약속했다.

대우건설은 서울 비강남권 정비사업 중 핵심지로 꼽히는 흑석11구역과 노량진5구역 수주에 ‘썬잇’을 적용해 사업을 따냈다. SK에코플랜트 역시 부산에서 반여1-2구역과 광안2구역 등에 드파인 브랜드

를 약속했다. 다만,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르엘이촌)에서만 적용됐다.

원래 하이엔드 브랜드는 대형 건설사 고급화 전략의 하나로, 서울 안에서도 강남지역과 한강변 핵심지 공략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사업성이 높은 곳에서 평당 분양가를 높여 잡고, 그 대신 고급 아파트를 짓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초창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적용 기준을 확대하면서 희소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기본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조합이 하이엔드를 원해도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5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조건으로 평(약 3.3㎡)당 830만 원에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한 톨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강변 핵심지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를 적용하고 싶어서 공사비를 문의했더니 평당 1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일반 브랜드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 시 하이엔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브랜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영업기밀, 대외비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발주처인 조합은 비싼 공사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며 투명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 강남 지역 이외 하이엔드 아파트 수주

건설사	브랜드명	수주 지역
현대건설	디에이치	부산 우동3구역 광주 광천동재개발
DL이앤씨	아크로	부산 중동 5구역 부산 축진3구역 서울 북가좌6구역 광주 신가동재개발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부산 축진 2-1구역
대우건설	썬잇	서울 흑석11구역 서울 노량진5구역 부산 대연4구역
SK에코플랜트	드파인	부산 반여 1-2구역 부산 광안 2구역

※ 출처: 각 사

본지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한 6개 건설사(현대건설·DL이앤씨·대우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에 구체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가이드라인을 문의했지만 이를 밝힌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조합조차 입찰 및 가계약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정

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복수의 조합 집행부에선 비하이엔드 단지와 단가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적용하고 공사비만 높여 받는 것 아니냐며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하이엔드는 평당 공사비가 최소 150만~200만 원 더 든다고 하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며 “우리 사업지는 자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찰 지침서에 자재 사용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는 비하이엔드 수준으로 마감하고, 단지명만 하이엔드로 달라고 하는 사업지도 있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라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같은 지역 하이엔드 단지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공개하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래미안’ ‘자이’면 충분하다

삼성물산·GS건설 단일 브랜드  
기존 브랜드 자체가 고급 이미지  
‘래미안 원’ ‘그랑자이’ 펫네임만

하이엔드 브랜드 흥수 속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은 기존 주택 브랜드로 승부하고 있다. 대신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 단지에는 펫네임(pet name·별칭)을 붙이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분위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서초구청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역대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 중 최고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 측 분양가 신청가는 3.3㎡당 7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곳으로,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삼성물산이 수주한 강남권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서 ‘래미안’ 앞에 ‘원’을 붙인 형태의 네이밍이 눈에 띈다. 건설사들이 일반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로

간판을 이원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삼성물산은 ‘래미안’만 두고 있다.

신반포아파트 3차와 반포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에는 ‘래미안 원베일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단지의 이름은 ‘래미안 원페를라’다.

GS건설도 ‘자이’ 단일 브랜드로 승부하고 있지만, 상급지역 아파트에는 ‘그랑자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마포 그랑자이’, ‘서초 그랑자이’, ‘방배 그랑자이’가 그렇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애초 래미안, 자이가 고급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안착했던 데서 출발한다. 여전히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리브랜딩이나 추가 론칭을 해야 할 까닭도 없다. 무엇보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이미 고급 이미지가 매겨진 기존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할 필요도 없다. 기존 브랜드명을 달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단지들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허지는 기자 hje@

# 제철봄맛 제철기부

## 지금도 기부가 제철입니다

신선한 봄철의 맛으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로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연간 최대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농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비밀) 불가

<경제부총리>

# 최상목 “역동경제 첫 과제,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 ‘경제정책방향’ 큰 틀 제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이동편 성장·분배 동시에 달성 가능

女 경제활동 OECD보다 낮아 교육 개혁·자산형성 통해 제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 등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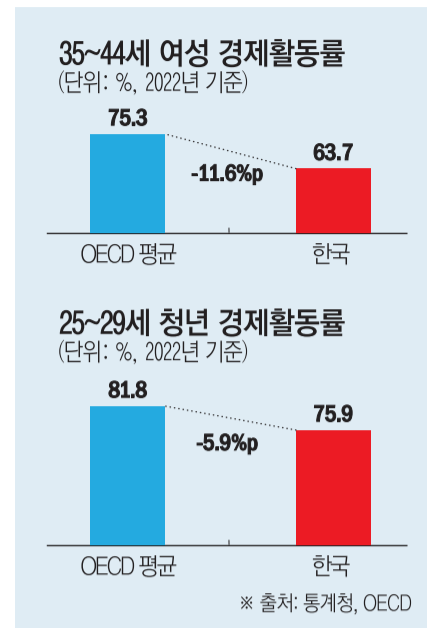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140분간의 발제를 통해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생기업을 성장시켜 생산성·일자리·임금을 지속 확대하는 이른바 ‘기업 스케일업’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결

국 거거서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며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추격성장에도



움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많았는데 우리도 레벨업을 하려면, 선도성장을 하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선도성장하려면 원천기술이나 기초분야 R&D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분야에 국가전략기술을 많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스케일업 관련 벤치마킹할 국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분야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팔로어가 아니다”며 “어느 국가를 벤치마킹한다는 콘셉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경활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활률을 높이는 것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늘리는 것이고, 개인도 좋은 일자리와 경제활동하면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부진한 여성과 청년 경활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5~44세 한국 여성 경활률은 63.7%로 OECD 회원국 평균(75.3%)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 25~29세 한국 청년(75.9%)도 OECD 평균(81.8%)보다 5.9%p 낮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확대는 물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 중기업, 특히 침탈했는데... 美서 소송하는 이유

###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글로벌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부 미국계 로펌들이 대부분 진행한다. 국내에도 특허·지식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소송을 한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국내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연결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 인 리인터내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침해 업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 자국 보호 강한 中선 승산 없어 美선 합리적 결과 도출 가능성 소송 전 물밑 협상 제도도 있어

물적 증거를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으로 ‘아웃소싱’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인 커밍’이다. 국내 변리사들은 아웃소싱보다는 인 커밍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둔다.

특허 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하는 미국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호한다.

특허 침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변호

사는 “해외 소송은 비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정말 골치 아프지만, 미국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며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성향이 지나치게 강해 승산이 없다고 하지만, ‘공정’이라는 개념을 갖춘 미국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특허 침해 피해는 대체로 중국 기업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보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이뤄진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전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잘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피해 기업에 합의금이나 특허에 대한 이용료를 주고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물론 피해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을 경고했을 때, 상대 기업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수진 기자 abc123@

## 해묵은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물꼬 여야, 이전 좁혀... 21대국회 넘을까

### 정부 국정과제, 野 반대로 좌초 여야, 풍력법 연계처리 뜻모아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처리를 부탁했다. 민주당 원내에서도 최근 고준위방폐물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들었다고 한다.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좌초돼왔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의 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박았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2년 11월 법안소위로 넘어간 뒤 10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유다.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켜 고준위방폐물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으로 공식 회의가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사라졌다.

여야는 당 지도부도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급회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난희 기자 nancho0907@

# 오늘 영수회담 성패...尹 귀에, 李 입에 달렸다

오후 2시 의제 조율 없는 차담  
李 “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  
거부권 자제·채상병 특검 등  
국정기조 전환 ‘칼자루’ 쥐어  
문재인·홍준표 회담 땀 ‘평행선’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귀(왼쪽 사진)와 이 대표의 입.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협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제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무제한 의제’ 대화가 결정된 만큼 가시적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공동 발표문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의정 갈등, 내수 활성화 등 민생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고,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으로 나뉘는데,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쟁 의제를 던진다면 윤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면전

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역대 영수회담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다. 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대통령이 ‘난국타개용’으로 꺼내든 카드지만,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진 뒤 정국이 더욱 경색되곤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할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 대표는 단박에 거절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영민 기자 oin@

## 내달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큰 민생법안은

AI기본법, 3년마다 지원책 수립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벌금↑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부처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질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처

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상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었고, 향후 협의 계획도 없다”고 알려왔고, 야당 간사 측에서도 “기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WeConnectScience

질병 앞에 거침없어야 과학이다

인류의 삶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질병의 걱정을 없애자  
과학으로 인류의 건강을 혁신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 김포골드라인·4·7·9호선 ‘지옥철 꼬리표’ 떴다

## 정부, 철도 증차 110억 투입

정부가 11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서울시 도시철도(4·7·9호선)의 증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증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국비를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김포골드라인은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서울시 도시철도(4·7·9호선)는 2027년까지 8편성 증차할 계획이다.

## 김포골드라인 2년내 5편성 늘려 출퇴근길 평균 혼잡도 30% 완화 서울 4·7·9호선은 총 8편성 목표

국토부는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에 더해 이번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증차하면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배차간격을 3분에서 2분 10초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혼잡시간 배차 간격이 50초 줄어들면 동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증차가 완료되면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길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실제 탑승 인원/탑승 기준인원)는 약 30%(182%→130%), 최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스

고 혼잡도는 약 25%(199%→15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상 열차 내 혼잡도는 190%

이상이면 ‘심각’, 170~190%는 ‘혼잡’, 150~170%는 ‘주의’ 150% 이하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에 각각 3편성·1편성·4편성 등 총 8편성을 20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가장 혼잡한 9호선의 경우 2027년 4편성 추가 도입 시 최고 혼잡도가 184%에서 1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증차 완료 시 최고 혼잡도가 15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문닫아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폐업률이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p)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도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82.6% 급증했다. 오픈업의 조사는 폐업 신고를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가 앞의 음식점들이 폐업한 채 공실로 남아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韓 성장률 ‘기대 이상’ ... “2%대 후반 가능성”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한국은행이 밝힌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6월 하순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3%(속보치)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0.6%)를 뛰어넘은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GDP가 분기별로 대략 0.5~0.6%씩 불어난다는 시나리오하에서 연간 2.2% 성장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에

1Q 실질GDP, 전분기비 1.3% ↑ 기재부, 전망치 상향 조정 예고 국내·외 투자업체도 한 목소리

0.7~0.8%포인트(p) 초과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 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대 후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2~4분기 모두 0%로 ‘제로 성장’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외 투자업체 시선도 다르지 않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기준 전망치보다 3.0%p 높은 2.7%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KB증권은 ‘2%대 중반’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1.9%에서 2.7%로, JP모건은 2.3%에

서 2.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간 한국 성장률이 2%대 후반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4~5월 산업활동지표 및 수출입 동향까지 반영해 6월 하순, 늦으면 7월 초순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관건은 2분기 역(逆)성장 여부다. 1분기에 깜짝 성장한 기저효과로 2분기 큰 폭의 성장을 조정이 불가피하고,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 당국자도 “2분기에 역성장까지 가리라고는 크게 전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연히 조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분기 경제성장을 이끈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수출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맞물려 뚜렷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추세이지만, 내수 부문은 1분기 지표만으로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에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WEF 참석하 안덕근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세계경제포럼)

### 산업부 장관, 사우디 회의 참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리야드 특별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발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열린 ‘WEF 리야드 특별회’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 개 세션에 1000여 명이 넘는 저명인사가 참석해 세계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포용적 성장은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전망, 인공지

능(AI) 기반 산업, 신형 경제국 부채 관련, 다음 세대의 노동시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작용의 경우 2030년 전기차의 미래, 공평한 에너지 전환, 청정수소 인프라 강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수요, 신핵에너지 역할 등의 분야를 아우른다. 글로벌 협력 재확화는 글로벌 무역정책 관련, 반도체의 미래, 탄소시장 관련, 가자지구 위기 관련, 글로벌 분절에 따른 투자 등이 논의 대상이다.

안 장관은 이번 WEF 회의에서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What Homeland Economics Means for Trade)과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 등에 패널로 자리했다. 먼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는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우선주의 흐름이라고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보와 성장 조화 방안을 언급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임현택 “증원 백지화 없인 협상 없다”... 의정갈등 점입가경

의·정 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렸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협 내에서 초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음달 임당

### 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강행 추진 정부 철회 없을 땐 휴진기간 재논의

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 지도부도 임당선인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대위와 달리 임 당선인은 그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해왔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행정·사법처분 시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

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강경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직 움직임에 대해선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자율모집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란 입장이다.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한성주 기자 hsj@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LYVLY.**

라이블리에서 실속 있게 구매하세요!

**N** 농협 라이브리를 검색해보세요 🔍

[www.nhlyvly.com](http://www.nhlyvly.com)



# 올해 'AI 인프라'의 해... '데이터센터' 돈 쏟아붓는 빅테크

1분기에만 총 320억弗 이상 지출 엔비디아·SMCI 등 공급업체 수혜 알파벳, 美 네번째 시총 2조弗 달성 "엄청난 지출 역풍 맞을수도" 지적

올해 빅테크 어닝시즌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들의 실적 자체가 아닌 지출 계획이었다. 기술산업에 있어 지난해가 챗GPT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챗봇'의 해였다면 올해는 'AI 배관(Plumbing·인프라를 비유한 표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IT 업체들은 AI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등은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데이터센터·기타 설비 등에만 총 32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을 지출했

공격적 AI 지출 나선 빅테크 (지출 규모: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1분기 데이터센터·기타 설비 등에 총 320억달러 이상 지출) \* 출처: 뉴욕타임스(NYT)

 <p>AI용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십억달러 더 투자해야</p> <p>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p>	 <p>AI 투자, 애저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p> <p>사티아 나델라 MS CEO</p>	 <p>인프라·데이터 둘러싼 기회 거대해</p> <p>앤디 제시 아마존 CEO</p>	 <p>분기별 120억달러나 그 이상 투자 이어갈 것</p> <p>루스 포랏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CFO)</p>
--	--	--	--

다고 밝혔다. 이들은 콘퍼런스 콜에서도 AI 지출을 늦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AI용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한다"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AI 투자는 MS의 핵심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인 애저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애저는 AI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가장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광부가 아닌 샵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오랜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고 NYT는 짚었다. AI에 대한 지출이 타당하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킨 빅테크는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알파벳은 전날 주가가 약 10% 폭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 MS와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네 번째다. 빅테크의 공격적인 지출에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공급업체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등 서버 업체, AI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유틸리티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SMCI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00% 뛰었고 알파벳보다 먼저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엔비디아도 82% 넘게 오른 상황이다.

다만 과도한 인프라 지출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어닝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폭락한 메타가 대표적이다. 메타는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최대 100억 달러까지 높여냈다.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AI 사업을 수익성 기반의 주력 사업으로 확장하기까지 수년간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메타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려고 하자 흔들렸다. 그 결과 메타 주가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RBC캐피탈의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는 "AI 붐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기업의 지출을 해석하는 데 있어 투자자들의 분별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전략은 없고 큰 비용만 지출한다면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불붙은 美 대학가 반전 시위... 하루새 200명 체포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27일(현지시간) 경찰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하려던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이날 80명이상이 체포됐고 캠퍼스가 폐쇄됐다. 미국 전역에서 하루 새 200명 이상이 대학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으며 18일 뉴욕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내에서 체포된 사람만 700명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미국 각 대학과 경찰은 캠퍼스를 점거한 시위대로 인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해산에 나서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미국)/AP연합뉴스

## 세계 주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늦출 듯

美 인플레이션 압력 탓에 지연설 고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압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선택이 복잡해지면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인하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인용해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통화정책회의부터 금리를 총 0.7%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2주 전만 해도 누적 금리인하폭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평균 0.88%p였다. 연초에는 1.63%p에 달했다. 그만큼 시장에서 ECB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당초 전망보다 느리고 완만하게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폭 전망치도 연초 1.72%p에서 2주 전 0.56%p, 최근

미국·유럽·영국 기준금리 (단위: %, 현지시간 기준)

연도	미국 (%)	유럽 (%)	영국 (%)
2020년	0.0	0.0	0.0
2021년	0.25	0.0	0.0
2022년	4.75	0.0	0.0
2023년	5.5	4.0	5.25
2024년	5.5	4.0	5.25

\*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0.44%p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제임스 나이트리 ING뉴욕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고민은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져 유럽 경제에 부담을 주고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베트남, 부패 척결 칼날에... '경제통' 사라졌다

브영 단 후에 국회의장 전격 사임 최고지도부 4개 자리 중 2개 공석 1년반 동안 정치국 위원 5명 축출 파벌싸움 속 경제 방향타 상실 우려 베트남에서 수년간 실시된 부패 척결 캠페인으로 공산당 고위직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다. 특히 최고지도부 4개 자리 중 2개가 공석인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베트남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제 방향타가 상실돼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7일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브영 단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전격 사임했다. 지난달에는 보만 트영 국가주석이 갑작스레 사직했다. 둘 다 공식적인 축출 경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불타는 용광로'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부패 척결 캠페인 중 비리가 발각된 것이 이유

로 꼽힌다. 특히 후에 전 국회의장은 권력 서열 1위 응우옌푸쑹 총비서의 뒤를 이을 차기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베트남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총비서(서열 1위), 국가주석(2위), 총리(3위), 국회의장(4위) 등 '빅4'로 구성됐다. 이번 후에 국회의장의 숙청으로 최고지도부 절반이 공석이 됐다. 정치국 위원 수도 13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 해임된 팜빈민 총리를 시작으로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정치국 위원 총 5명이 후임 없이 축출된 것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부패 척결 캠페인에 따른 사정의 칼날이 거세다. 이달 80세가 된 쑹 총비서의 건강 우려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권력 재편을 위한 당내 파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26년 개회 예정인 차기 전당대회에서 15년 만에 새 총비서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개발연구소의 이시즈가 후타바 연구원은 "현재 베트남 반부패 투쟁은

점점 더 파벌전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면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고발 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도부 인력풀 감소와 함께 '경제통'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숙청된 후에 전 의장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재무장관도 지냈다. 반면 쑹 총비서는 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신중한 보수주의자로,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응우옌 단 등 전 총리 등 시장 개방 세력을 꺾었다고 닛케이기는 설명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이모이(쇄신) 정책'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경제는 2010년대까지 고성장을 이뤘지만, 현재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력 투쟁으로 경제정책 추진이 정체되면 향후 베트남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닛케이기는 경고했다. 이진영 기자 mint@

## 금리 인상 리스크에도... 日서 영끌부부 급증

'페어론' 늘어... 가계부채 우려 일본에서 주택 가격 급등 여파로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각각 받는 이른바 '페어론(pair loan)' 이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도쿄도 신축 아파트 계약대출 이용자 중 34%가 페어론으로 대출을 받았다. 교토와 오사카 등이 있는 간사이권도 페어론 이용자가 25%에 달했다. 모두 2018년 해당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페어론이란 부부가 각각 1건씩 총 2건의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페어론을 받는 부부가 급증한 배경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도쿄 23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억 엔(약 8

억7000만 원)을 돌파했다. 대출을 늘리지 않고 부부 2인 가구 소득만으로 엄두도 못 내는 수준이다. 최근 일본 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것도 페어론 증가로 이어졌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278만 가구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업 주부인 가구의 약 2.5배에 달한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페어론 이용률이 60~70%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여, 고소득 부부일수록 고가 부동산 매입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여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주담대 이용자의 약 75.4%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현대차그룹, 바이두와 동맹 강화... 中 커넥티드카 공략

**협업 10년째 미래 신사업 MOU 커넥티드카·자율주행 SW 개발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SW 강화 중장기 SDx 전략 가속**

현대자동차·기아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 '바이두'와 함께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바이두와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 사장, 왕원평 바이두 IDG 총괄·바이두그룹 부총재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이 경험해 보지 못한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양측 공동의 목표와 도전 의식에 따라 체결됐다. 현대차·기아와 바이두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앞으로 바이두와 함께 △커넥티드비티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진일보한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한다.

중국의 데이터 규제 강화에 대응해 바이두의 스마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도 개발한다. 또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중국상업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2029년 중국 커넥티드카 산업 시장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2152억 위안(약 40조234억 원), 판매 대수

는 170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인 2019년 시장 규모와 판매 대수가 636억 위안, 720만 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각각 3.4배, 2.4배 수준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두와의 협력 강화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중장기 소프트웨어 전략 SDx (Software-defined everything) 가속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두는 커넥티비티를 비롯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검색엔진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세상의 모든 이

동을 지식과 혁신의 원천으로 삼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SDx의 목표"라며 "바이두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 커넥티드카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바이두와 2014년부터 올해로 10년째 협업하고 있으며 통신행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음성인식서비스, 카투홈·홈투카,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 등 바이두와 공동 개발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지난해 9월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2기 수료식 사진제공 포스코그룹

## 취업·주거·예술 활동 등 장애인 자립 돕는 포스코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포스코그룹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최근 장애인 코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의 3기 수료생이 탄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청장년 장애인을 선발해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희망날개'·'희망공간'과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희망날개 사업은 포항·광양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인천, 성남, 안산, 세종, 천안, 구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희망공간 사업은 장애인 시설과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망날개 사업은 지금까지 156명의 상이국가유공자·소방공무원·군인과 781명의 포스코그룹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의족·휠체어·안구 마우스·경기용 장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희망공간 사업은 포항과 광양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장애인 시설 및 장애아동 가정 86개소를 리모델링해 24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선물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 사업은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뛰어난 예술적 능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애 예술인들의 일상과 예술활동을 인기 대중가수와 협업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해 대중화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 예술인 34명을 선정해 총 74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GTX 유리창을 투명 OLED로... LG디스플레이, 55인치 공급

**열차 8량에 16대 국내 첫 시범 적용 노선도·운행시간·편의정보 제공 고속·진동 '철도규격테스트' 통과**

LG디스플레이가 최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국내 최초로 철도용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일반 지하철에 비해 약 3배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GTX-A 객실 창문에 적용된 55인치 투명 OLED는 탑승객에게 노선도와 운행 및 편의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쾌적한 객실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선명한 화질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가시성을 높여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장시간 이동 중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창문처럼 투명한 화면이 특징으로 공간감이 좋고 비상 상황 시 외부 확인이 가능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속 150km 이상 고속으로 선로를 달리는 열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특수 강화유리를 적용해 기존 대비 충격과 진동에 강하다. 한국철도표준규격 테스트도 통과했다. LG디스플레이와 GTX-A 사업 시행사 S그레이일은 수서-동탄 구간 열차 8량(1편성)에 투명 OLED 16대를 우선적으로 도입 및 시범 적용했다. 이 용역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GTX-A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베이징, 푸저우,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 지하철과 일본 JR 동일본 열차 등에 철도용 투명OLED를 공급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모델이 GTX-A에 시범 적용할 투명 O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현재 양산 중인 투명 OLED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기존 LED보다 발열이

적어 실내 사용에 적합하고 투명도가 높으면서 얇고 가벼워 유통, 사이니지, 건축,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421마력 괴물 SUV... 벤츠, AMG GLC 출시

**F1 기술로 저속에서도 최대 파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C의 퍼포먼스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를 출시했다.

AMG GLC는 SUV 모델인 3세대 완전 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사진)과 쿠페형 SUV 모델인 2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로 구성된다. SUV 모델 가격은 9960만 원이며 쿠페형 SUV 가격은 5월 출시 시점에 공개한다.

AMG GLC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GLC의 고성능 모델이다. 실용적인 SUV의 차체에 뛰어난 주행성능까지 겸비했다. 이전 세대보다 넓어진 차체에

향상된 출력의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했다.

AMG GLC엔 메르세데스-AMG의 '원맨 엔진(One Man, One Engine)' 철학이 적용된 AMG 2.0L 4기통 엔진(M139)과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단 변속기가 탑재됐다. 최고 출력 421마력, 최대 토크 51kgf·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M139 엔진에는 전자식 모터가 장착된 배출가스 터보차저를 탑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포뮬러 원 팀인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의 기술을 차용, 저속에서도 최대의 파워를 낼 수 있다.

SUV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80mm, 15mm 길어졌다. 쿠페 모델 역시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40mm, 15mm 확장됐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정기선 '세계경제올림픽' 공동의장 맡는다

**사우디서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전문가 900명 지속가능성장 논의**

로버 리더 16명을 이번 특별회의의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공동의장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정기선(사진) HD현대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HD현대는 정 부회장이 28-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회의로서, 글로벌 경제 현안과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다. 매년 동계(스위스 다보스)와 하계(중국 다렌/텐진) 두 차례의 정기포럼과 특별행사가 개최되며 세계경제포럼과 사우디 정부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의 경우 정기포럼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가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증진 △포용적인 성장 모색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해소 등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주최 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글

) 총재, 대런 우즈 엑스모빌 회장, 마쿠스 발렌베리 스웨덴 SEB은행 회장, 안나막스 달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의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인으로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정 부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친환경 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정 부회장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A.P. 몰러-머스크 의장, 아민 나세르 아랍코 사장과 만나 친환경 선박, 수소사업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정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보편적 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HD현대의 미래 비전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고 있는 만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멘토링 커뮤니티 기반, 취준생·초년생에 맞춤 솔루션”

## 탐방기UP 코멘토

### 교육·채용 서비스 스타트업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의 문턱을 낮춘다.” 코멘토 이재성(사진) 대표가 전한 회사의 비전이다.

28일 이재성 대표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과 기업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저마다의 문턱을 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코멘토가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통해 사람과 기업이 꿈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멘토는 취업 준비생이 현직자에게 커리어나 직무 관련 성장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리어 멘토링 커뮤니티 생태계를 기반으로, 교육과 채용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대표는 진학과 진로 문제 등과 관련해 정보와 도움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관문을 잘 넘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 도움을 주고자 참여하여 여러 활동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하고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도움과 정보들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코멘토는 현재 사업의 토대가 되는 커뮤니티 누적 가입자가 160만 명이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를 고객사로 들 정도로 취업 준비생이 사회 초년생으로 전환되고, 사회 초년생이 다시 직무 관련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9월 창업 이후 누적 투자금은 60억

달러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차별화 커뮤니티 누적 가입자 160만명 직무부트캠프 론칭후 성장 지속 60억 유치... 매출·수익성 개선

원 정도다. 지난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와 기업과 대학 간 거래(B2U)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영역까지 고객을 다각화하고, 제공하는 교육과 채용서비스도 다양화하면서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많이 개선해 작년 5월부터는 손익분기점(BEP)도 돌파하는 등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코멘토는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화시켜왔다. 첫 번째는 커리어 멘토링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형성하는 단계였고, 2019년부터 코멘토 생태계를 활용해서 직무부트캠프나 실무PT, 드림버스컴퍼니, 익스텐션 등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결

합한 교육과 채용서비스를 통해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20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과 직무의 워크플로우 분석에 기반을 둔 일경험 설계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 자체적으로 업무 자동화를 위해 개발하고 도입했던 인공지능(AI)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해 3단계에서는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인적자원(HR) 기업들 대비 코멘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커뮤니티 생태계에서 출발해 교육과 채용 솔루션 영역으로 확장한 점을 든다. 그는 “예를 들어 직무부트캠프의 경우 다른 직무교육과는 다르게 일반론보다는 산업과 직무, 그리고 직무 내에서도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유저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추천하기 때문에 재교육비용이나 유저 획득비용을 낮춰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멘토는 멘토링 커뮤니티나 일경험 기반의 교육인 직무부트캠프 등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

고객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기업대상 서비스로는 익스텐션과 최근 론칭한 AI 전환 관련 솔루션이 있다. 해당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한솔그룹이나 동국제약, LG유플러스, 신한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과 작년부터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다.

코멘토는 2019년 직무부트캠프 론칭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성장세가 가파르다. 작년 매출은 7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6.2% 신장했다. 적자 규모도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다.

이 대표는 “작년에 최종적으로 영업손실이 나가는 했지만 5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BEP를 달성한 상태이며 올해는 연간 BEP 달성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올해 1분기는 작년의 연간 주주 매출의 70% 수준을 이미 달성해 올해도 작년만큼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 신한투자증권 IRP는 관리 수수료 없이 한평생 함께

모바일 계좌도 지점 계좌도 모두  
자산·운용관리 수수료가 0원이니  
퇴직연금 평생 Save!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별도 발생)

IRP 계좌내 순입금 시  
최대 3만원 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중  
(조건 충족 시, ~6/30, 잔고 유지 1개월 필수)

**※ 이벤트 유의사항**

- 이벤트 참여 및 혜택 수혜를 위해 마케팅 이용 (수집, 이용, 제공, 수신) 동의는 필수이며, 경품지급 시점까지 마케팅 정보 수신 (SMS, Push, 주간 8~21시)에 동의 체크하신 후 혜택 수혜 시까지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한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 (유대폰번호)가 제공되고, 경품 발송/배송 후에는 개인 정보가 폐기됩니다. (수탁업체: KT알파, 제공범위: 핸드폰 번호 등. 발송 후 규정에 따라 폐기)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 비용 및 집합투자증권 등 거래 시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650호 (2024-04-08 ~ 2024-06-30)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 제24-01344호 (2024-04-15 ~ 2024-06-30)

**신한투자증권**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한일 경제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 전통시장 내 코노·애견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 중기부, 규제 71건 개선 추진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존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폐업신고 기한을 7월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세상에겐  
내일의 기술.



두산에겐  
오늘의 기술.

두산로보틱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두산의 협동로봇



파워, 안전성, 정교함을 모두 갖추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일하는 협동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문제에 답이 되는 기술  
사람과 로봇의 시너지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두산은 지금,  
사람을 대신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던 로봇 기술을 넘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 기술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네이버·카카오〉

# ‘알·테·쉬’ 공습에도 네카오 실적 “휴~”... “안심 아직 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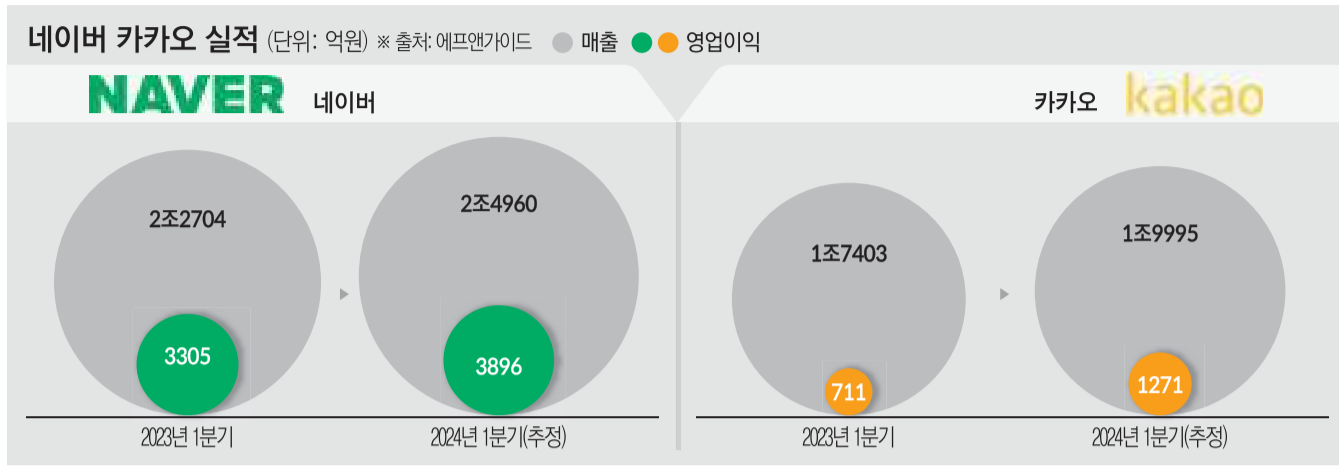
## 1분기 실적 선방 전망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등 C-커머스(중국+이커머스)의 공습에도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실적을 낼 전망이다. 다만 C커머스의 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 2조4960억 원, 영업이익 3896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17.9% 증가한 기록이다. 역대 분기 기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전체 매출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커머스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의 공습으로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은 성장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수한 중고패션 플랫폼 ‘포시마크’의 광고 매출이 증가한 데다 브랜드스토어 수가 늘면서 실적감소를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색광고 등 서치플랫폼 부문도 쇼트폼



## 네이버 영업이익 17.9% ↑ 3896억

### 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2번째 중고패션 플랫폼·쇼트폼 영향

(숏폼) 인기 등에 힘입은 트래픽 확대와 광고지면 확장에 견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사업도 호조를 띠 전망이다. 1분기 처음 온기로 반영되는 ‘뉴로 클라우드’가 공공기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용처를 확대해 클라우드 부문 기업간 거래(B2B) 사업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전체 실적 증가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웹툰 수익화 확대도 콘텐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네이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알리는 네이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테무 또한 가격 비교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준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대규모 광고가 계속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네이버가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제품에 유통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스토

## 카카오 영업이익 79% ↑ 1271억

### ‘톡비즈’ 광고·커머스 모두 성장 콘텐츠사업 부진은 부담으로

어와 저가 생필품 위주 스토어의 거래액에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둔 카카오는 올 1분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9995억 원, 127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

각 14.9%, 78.8%씩 증가한 수치다. 전방과 같은 실적을 내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의 주력사업인 ‘톡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티, 페이 등 플랫폼의 매출 역시 연초 성수기 효과로 15% 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를 향한 시장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달 전 카카오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2조 원대를 기록했으나 카카오는 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핵심 수익원인 톡비즈 매출은 견고하지만 콘텐츠 사업의 부진이 부담이라는 평가다. 정호은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톡비즈 내 광고와 커머스가 모두 성장하겠지만 콘텐츠 사업부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마케팅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는 데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또한 편성의 어려움이 겹치며 제작일정 상 딜레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 3사 가운데 유일한 시니어전용 메뉴인 'B tv 해피시니어'의 지난해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47%, 시청건수는 82%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 IPTV 유일 시니어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 실시간 방송

# ‘B tv 해피시니어’ 시청자 30배 증가

큰 글자·포스터 이미지로 차별화 영화·트롯 등 취향 맞춤형 콘텐츠 키오스크 사용법·일자리 정보도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IPTV) 3사 가운데 유일한 시니어 전용 메뉴인 ‘B tv 해피시니어’의 지난해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47%, 시청건수는 82%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3년 간 해피시니어의 시청자수는 29.5배, 시청건수는 37배 증가했다.

해피시니어는 B tv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시니어 고객들의 TV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취향에 맞춘 다양한 영화, 드라마, 예능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피시니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차별점은 B tv의 다른 메뉴보다 큰 폰트의 글자와 포스터 이미지를 갖췄다는 점이다.

실시간 시청이 익숙한 시니어들이다 시보기(VOD)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B tv 채널번호 69번과 89번을 통해 시니어 취향의 무료 영화, 운세, 뉴스와 같은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또 ‘트롯이 좋아’, ‘건강 지킴이’, ‘행복한 여행’ 등 시니어 취향에 맞는 메뉴를 별도로 편성했다.

5일에는 시니어들의 수면 건강을 위

한 콘텐츠, 다양한 생활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오늘의 픽(Pick)’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화를 이용해 인공지능 인간(AI 휴먼)이 대중 교통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들도 준비하고 있다. ‘추억을 파는 극장’ 특별관에는 시니어 고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장르의 해외 고전영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영화들의 자막 크기는 일반 영화 대비 2배 이상이다.

해피시니어는 시니어의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스마트폰 이용방법, 키오스크 사용법, 시니어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AI를 활용해 시니어 고객이 전화를 걸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링크를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시니어 고객 시청자 수와 시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시니어의 최근 3년간 시청자는 29.5배, 시청건수는 37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시청자 수가 47%, 시청건수 82% 상승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TV를 이용하는 50대, 60대, 70대의 응답률은 각각 86%, 95.3%, 97.5%로 집계됐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회계·내부통제 강화’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엄격해지는 규제환경 선제 대응 ‘쟁글 ERP’ 정식버전 출시 관심 컴투스, 블록체인 첫 ISAE타입 인증 코빗 등도 내부통제 확인 SOC 획득

1분기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및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들의 회계 및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적용 및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감독지침은 올해 1월 1일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식공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의무화 된다.

국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인프라 제공 업체 쟁글은 이러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취급 기업들의 수요를 타깃으로 한 웹3.0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 ‘쟁글 ERP’를 22일 정식 출시해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 쟁글 ERP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토크노믹스, 온체인 데이터 기반의 성과 지표 등 웹3 사업 진행을 위한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당장 올해 1분기부터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쟁글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개된 무료 베타버전을 신청한 곳은 60곳이 넘는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국제 인증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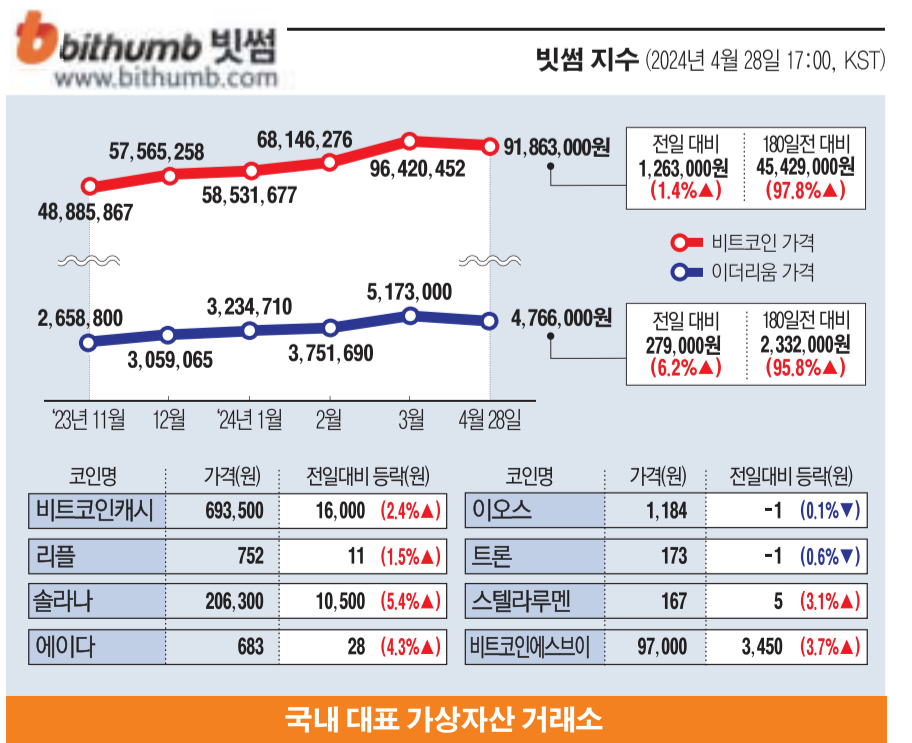
## 국내 규제환경 변화와 업계 선제 대응

1분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무화·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규제 강화’	
쟁글	웹3 전사적관리시스템(ERP) 서비스 ‘쟁글 ERP’ 출시...60곳 이상 도입
엑스플라(XPLA)	시스템 설계·운영 관련 국제 인증 ISAE 3000 타입 2 획득
코빗·KDAC	SOC 1 타입 2 인증...글로벌 거래소·수탁사 수준 내부통제 신뢰도 확보

대표적으로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는 15일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ISAE 3000 타입 1과 타입 2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코빗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경우에도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및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 제공 회사의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인 SOC 인증(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중 고객사 재무 보고와 관련한 SOC 1 타입 2를 획득했다.

코빗은 이를 통해 이미 해당 인증을 획득한 코인베이스, 제미니 같은 글로벌 거래소와 내부통제와 관련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DAC 역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피델리티 디지털애셋, 비트코 등 해외 수탁 업체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7월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 규제 환경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코빗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계 참여자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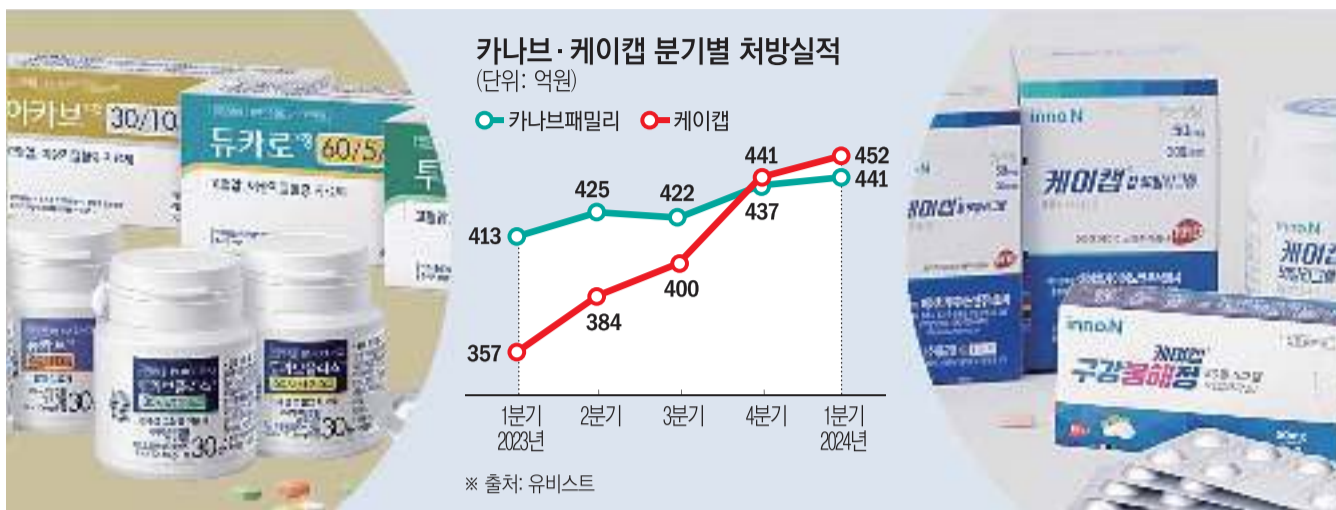
# 공동판매 '원팀' 꾸린 카나브·케이캡... 1분기 실적 '순항'

## 보령·HK이노엔 시너지 효과

카나브패밀리 4종 처방실적 전년비 8% 성장하며 384억 케이캡, 27% 늘어난 452억 세미나·국제학술대회 등 활동 영업·마케팅까지 소과정 협력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으로 뭉친 보령과 HK이노엔이 의기투합과 동시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나란히 성장하면서 양사의 '원팀(One Team)' 전략이 순항 중이다.

28일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보령과 HK이노엔이 공동판매(코프로모션)하는 카나브패밀리 4종(카나브·듀카브·듀카로·듀카플러스)의 올해 1분기 처방실적은 384억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성장했다. 2022년 출시한 듀카플러스의 경우 42억 원을



달성해 전년동기 대비 35%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카나브패밀리 7종의 처방실적은 44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신약 처방실적 1위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령과 HK이노엔은 올해부터 카나브와 케이캡의 코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든 회사의 최초 협력 사례다. 순환

기치료제 시장과 소화기치료제 시장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양사가 손잡으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란 평가다. 케이캡 역시 올해 1분기 처방실적 45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성장했다. 2022년 출시한 구강붕해정의 처방실적은 40% 이상 늘었다. 종근당과 결별하면서 일각에선 영업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왔지만,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보령과 HK이노엔은 각자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런 성과를 끌어냈다. 실제로 양사는 카나브와 케이캡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 준비부터 국제학술대회 부스 운영, 거래처 신규 코딩 등 활동의 대부분을 함께 펼친다. 양사 임원은 물론 실무진까지 수시로 서로의 회사를 오가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영업현장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원팀 전략을 통해 카나

브와 케이캡의 시장 지배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만성질환 분야에서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보령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소화기 시장에서 자신감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2019년 케이캡 출시 후 5년간 축적된 장기 처방 데이터와 우수한 약효, 넓은 적응증을 무기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갈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전체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확고한 리딩품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나브는 보령이 개발한 국내 최초 안지오텐신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이다. 15호 국산신약으로 2011년 출시됐다. 보령은 2026년까지 카나브패밀리 연매출 2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30호 국산신약 케이캡은 국내 P-CAB 시장의 포문을 연 제품이다. 지난해 1582억 원(유비스트 기준)의 매출을 올렸고, 국내 소화성궤양 용제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전국민의 안티푸라민... 신제품 통해 2030 확장"

###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②

#### 유한양행 김정진 부장·이민주 대리

연고·로션·파스·에어파스 진화 작년 매출 332억 9년새 3배 쏙 '더블파워 패키지' 모델에 손흥민 트렌드 반영해 젊은층 집중공략

"1933년부터 지금까지 국민 사랑을 받는 유한양행의 1호 의약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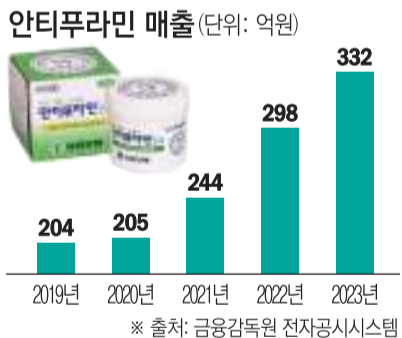
'안티푸라민'은 유한양행의 첫 번째 자체개발의약품이다. 유일한 박사의 요청을 받아 의사인 아내 호미리 여사가 개발했다.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등을 치료하고자 만들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처럼 사용했다. 제품명은 '반대'란 뜻의 안티(anti)에 '불태우다, 염증을 일으키다'란 뜻의 '인플레이(inflate)'를 합쳐 부르기 쉽게 다듬었다. 이름 그대로 항염증제, 소염진통제란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안티푸라민 브랜드 매니저 김정진 OTC마케팅팀 부장과 이민주 대리를 만났다. 이 대리는 "국내 소염진통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티푸라민 성장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며 "연고에서부터 쌓은 로열티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91년 전 연고로 시작한 안티푸라민은 제품군을 점차 늘려 오늘날에 이르렀다. 성분을 보다 강화한 로션, 붙이는 파스(접부제), 뿌리는 에어파스가 시장에 나와 있다. 김 부장은 "안티푸라민의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 1999년 로션, 2010년대 접부제로 제품군을 넓혔다"며 "매출 정체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더욱 끌어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만난 안티푸라민 브랜드 매니저 김정진(오른쪽) OTC마케팅팀 부장과 이민주 대리는 안티푸라민 성장률이 다른 소염진통제 제품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연고부터 쌓아온 로열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유한양행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안티푸라민 매출은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 100억 원을 넘었고, 5년 만인 2019년 2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 332억 원으로 300억 원 고지도 점령했다. 김 부장은 "안티푸라민을 맡은 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미소지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2015년 나온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카타플라스마' (이하 더블파워)다. 냉찜질과 온찜질이 이중효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블파워를 비롯한 제품 패키지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리잡아 약국에서 '손흥민 파스'로도 통한다. 2019년부터 손흥민을 안티푸라민 모델로 내세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했다. 김 부장

은 모델 선정 이유로 "안티푸라민이 소염진통제라 운동선수와 접점이 있다. 유한양행이 민속기업이란 점이 널리 알려져 손 선수와의 인연이 흔쾌히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시장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제품 크기를 변형한 '안티푸라민 쿨파워 플라스타 롱사이즈'를 선보였다. 기존 쿨파워 플라스타보다 좌우로 길고 신축성이 뛰어나 팔꿈치나 무릎처럼 굴곡진 신체 부위에 붙이기 편리하다. 또 7월까지 안티푸라민 제품군의 패키지 디자인을 차례로 리뉴얼한다.

앞으로 안티푸라민의 주 소비층을 2030세대까지 넓힐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운동 전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이나 스틱형 제품을 내놓고, 기존 에어파스 크기를 줄인 미니형 제제로 휴대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부장은 "앞으로 400억 원, 500억 원까지 성장하려면 브랜딩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주로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세대가 직접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제노스코·오름테라퓨틱 '기술성 평가' 통과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첫 관문

바이오기대주로 꼽히는 제노스코와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선다.

2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상장 첫 관문을 넘었다. 제노스코는 업계에서 드문 AA, AA를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노스코는 2008년 미국 보스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신약개발 플랫폼 GENO-Kinase(GENO-K)와 GENO-Degrader(GENO-D)를 기반으로 다수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대표 약물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상품명 렉

라자)으로, 유한양행을 거쳐 미국 안센에 2018년 기술이전됐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1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미국·유럽에 신약허가를 신청하고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개 기관에서 AA를 받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술이전에 성공한 오름테라퓨틱은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BBB 등급을 획득했다. 2016년 설립된 오름테라퓨틱은 자체 개발한 이중정밀 표적단백질 분해접근법(TPD<sup>2</sup>)을 적용해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적합한 차세대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브리스톨마이어 스쿼브(BMS)에 ORM-6151 프로그램을 이전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억 달러(약 1300억 원) 포함 총 1억8000만 달러(약 2340억 원)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동아쏘시오홀딩스, 온라인 배당조회 첫 도입

### ESG 경영·주주 접근성 강화 차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주주 친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주주 친화 기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과 주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주총회 소집과 배당금 지급통지 방법을 변경했다. 서면 통지의 환경적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배당조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8년 제70기 정기 주총부터 전자투표 및 전



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주주 의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다. 2024~2026년 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중간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원 지급과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2023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처음 도입, 장사 후 첫 중간 분기 배당으로 약 325억 원을 배당했다. 한성주 기자 hsj@

# “손님의 손님까지 ‘하나’로… 빅딜하려면 관계가 곧 자산”

## ★ ‘은행의 별’을 말한다

### ⑥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전호진 하나은행 부행장은 기업금융(IB) 1세대로 꼽힌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인 1999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 IB 업무가 시작됐다. 하나은행과 합병 이전인 19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한 그는 투자금융부에 발령받은 이후 23년간 IB에서 근무한 ‘투자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주로 글로벌 사모펀드(PE·Private Equity)나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 인수 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인수금융과 지분투자 등의 업무를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이 튼튼하다보니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처음 IB 업무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외국계로부터 배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준약관에 쓰는 생소한 용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전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를 이해한 후 크레딧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20년이 훌쩍 넘는 지금은 국내 로펌들도 한글로 계약서를 만들면서 많이 정제되고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전 부행장은 2007년 당시 외환은행의 홍콩투자은행 현지법인인 K.A.F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홍콩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만들 때 당위성 등 여러 가지 설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별도 팀이 도와줬지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홍콩 당국과의 작업 등을 거쳤다. 엄격한 룰에 따라 자본 비율, 인·물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7년에 있었던 휠라코리아의 FILA 글로벌 인수금융이다. 당시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약 3억 달러 정도의 부채조달(DEBT FINANCING)과 경영자 매수(MBO) 방식의 인수금융을 주선했다. 당시 자금이 워낙 적은 데다 내부적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하나은행

**전호진 하나은행 부행장**

인적사항	
출생	1968년
학력	
1986년 2월	상문고
1992년 2월	한양대 경영학
2013년 2월	KAIST EMBA
주요경력	
1992년 3월	외환은행 성남지점 행원 [입행]
1994년 12월	외환은행 아탑역지점 계장
1997년 8월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계장
1999년 3월	외환은행 수서지점 대리
2000년 2월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2003년 2월	외환은행 시장영업본부 대리
2004년 6월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전문역
2005년 6월	외환은행 인사운영부소속 조사역
2005년 12월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전문역
2007년 1월	외환은행 홍콩지점소속 조사역
2009년 7월	외환은행 K.A.F. 파견 조사역
2010년 2월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선임전문역
2014년 8월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팀장 [관리자 승진]
2019년 1월	하나은행 투자금융부 부서장
2021년 5월	하나은행 투자금융사업단장
2022년 1월	하나은행 투자금융본부장 겸 PF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신규 선임]
2022년 7월	하나은행 IB사업본부장 (본부장)
2023년 7월	하나은행 IB그룹장 겸 부동산금융본부장 (상무)
2024년 1월	하나은행 IB그룹장 (부행장) [부행장 신규 선임]

### 1992년 외환은행 입사, IB 개척 외환위기 겪으며 크레딧 구조 분석 23년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성과 휠라코리아 인수금융 참여 인상적

으로 반대도 심해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큰 보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수많은 일을 성공시킨 전문가에게는 투자 철학이 있을 터. 그는 은행 IB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롱텀-릴레이션십(Long-term Relationship)’을 꼽았

다. 전 부행장은 “우리가 만나는 시장 플레이어들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대표가 돼 있다”고 했다.

특히, 인수금융에서 롱텀-릴레이션십이 빛을 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인수금융 대출을 받을 때 기관투자자(LP)에 출자한 기관들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나은행이 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이유는 외국계와 밀을 많이 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와 오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 투자철학 ‘롱텀-릴레이션십’ 꼽아 글로벌 PEF와 신뢰 구축 경쟁력 그룹장 3년 만에 자산 3000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포부

금리나 조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양보해 주면 신뢰 관계가 쌓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비밀 유지 또한 중요하게 꼽는 원칙 중 하나다. 전 부행장은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를 지켜줘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직원에게도 ‘관계 자산’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 자산은 성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3200억 원이었던 IB그룹의 일반영업이익은 그가 그룹장으로 있었던 지난해 62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보유자산 규모는 3년 간 연평균 20%씩 증가했다.

전 부행장의 목표는 IB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분투자 등을 통한 업의 경쟁력을 확장하고, 해당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상생 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을 통해 플랫폼 유저에게 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인수 금융 대상인 제조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협업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IB그룹의 은행 내 기여를 확장하는 식이다.

그는 “은행 IB의 역할은 우량자산을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 기업 손님을 모셔오는 것”이라면서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인수하는 회사의 기업금융을 우리 영업점과 연계시키는데 많은 고민을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나아가 ‘손님의 손님’에 집중하고 있다. 전 부행장은 “기업금융을 연결해준 타깃컴퍼니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에 거래하는 손님들이 있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 경우 손님들을 하나은행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구독경제같이 때 유행 지물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얘기를 나눈다. IB의 역할은 단순히 수수료를 버는 것보다 기업 손님을 연결해주고, 이에 파생되는 손님을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행장은 후배들에게 ‘인프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현재 기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20년 후의 본인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 그는 “근무 초창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된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본인이 팀장이나 부장, 임원이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하나증권, 성균관대와 MOU 체결 의료·헬스케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하나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

하나증권은 ‘하나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를 열고,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5일 열린 ‘하나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에는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안선중 하나벤처스 대표이사, 관계사인 하나은행과 하나벤처스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임직원,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81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하나증권은 국내외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벤처스는 벤처캐피탈(VC)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방안을 공유했으며,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의 협업과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원큐 애자일랩’으로 하나금융과의 협업 모델을 소개했다.

참여한 기업들은 하나증권과 미트업 행사를 통해 개별 미팅도 실시했다. 하나금융과의 협업 방안과 지분투자, 임팩트 투자, 전략적 투자 등 각종 투자 관련 사항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국내외 기업공개(IPO) 등 주제별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됐다.

강성목 대표는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준(왼쪽부터) 성균관대 BT-S지원센터장, 안선중 하나벤처스 대표,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 최재봉 성균관대 부총장, 이병철 하나증권 WM그룹장이 ‘하나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행사에서 하나증권과 성균관대는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MOU를 맺었다. 성균관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주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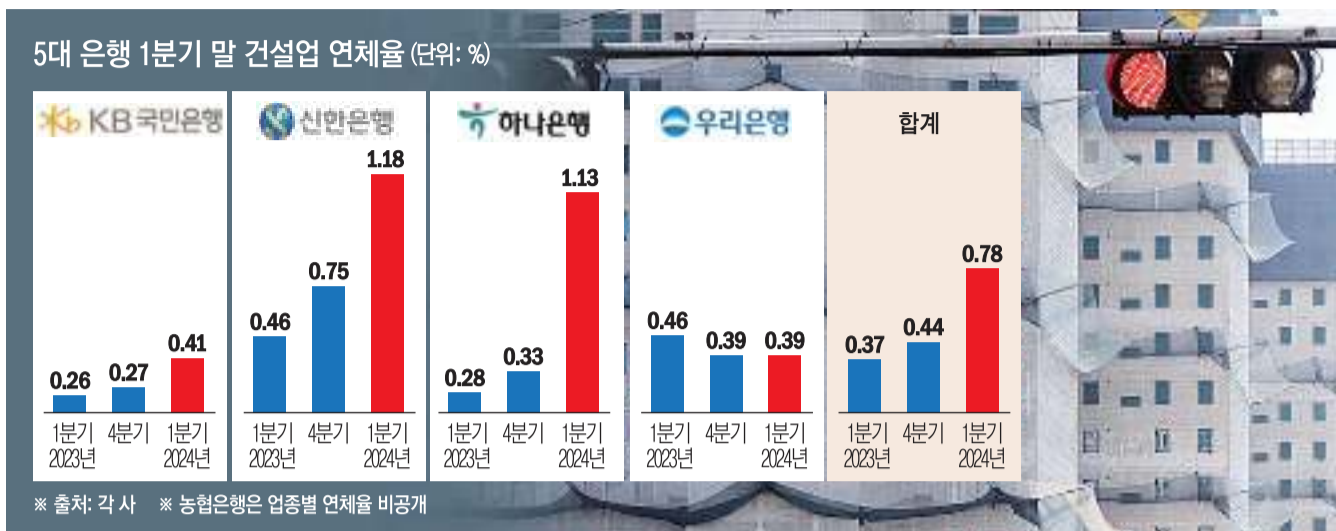
# 건설업 연체율 1년 새 2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안간힘'

4대 은행 건설업 연체율 0.78%  
신한·하나銀 2곳은 1% 넘어서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 급증세  
"지방 건설경기 침체, 악재 여전"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건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는 물론 전분기(0.29%)보다도 상승한 수치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오른 가운데 기업 중에서도 유독 건설업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순 평균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의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건설업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말 0.46%였던 건설업 연체율이 올해 1분기말 1.18%까지 급증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0.28%에서 1.13%까지 치솟았다.

국민은행의 지난 1분기말 건설업 연체율은 0.41%로 전년 동기 0.26%에서 0.15%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말 0.46%에서 올해 1분기 0.39%로 낮아졌으나, 전체 기업 연체율(0.28%)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농협은행은 팩트북에서 업종별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일부 건설사 등의 기업개신작업(워크아웃)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면서 "특히 지방 건설경기 악화로 향후 건전성 타격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내년 정도는 돼야 회복하는 기미가 보일 것"이라며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대부분 노출되는 등 2분기에 있어서도 크게 좋아질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종에서 실제로 부도로 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부동산업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금융연

구원이 이날 발표한 '위기별·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175조 7000억원)과 건설업(44조 3000억원)의 대출 증가분이, 전체 업종 대출 증가(567조 4000억 원)의 38.8%를 차지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 평가해 보면, 최근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평가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 또는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업대출 증가분 39%, 부동산·건설 차입금 비중, 글로벌 위기 수준" 은행, 부실채권 상·매각 늘렸지만 고정이하여신 비율 오히려 상승

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지속, 공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달 2일 "한국은 2022년 말 테마파크(레고랜드) 부채 문제로 위기를 겪었고, 정부가 지난해 말 건설사(태영건설) PF 관련 지원을 약속해 약점이 위기로 악화했다"며 "지난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25년 만에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고 있지만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중에만 1조 6079억 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8536억 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 2022년 1분기(4180억 원)와 비교하면 상·매각이 불과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김범근 기자 nova@·손희정 기자 sonhj1220@

## 1월 초회보험료 7044억...업계 선두 '연금보험 名家' 떠오른 NH농협생명

'방카슈랑스 채널' 효과 톡톡 '하나로든든...' 'NH세테크...' 다양한 연금상품 인기도 한몫

최근 은퇴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NH농협생명이 연금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대형 생명보험사를 제치고 다양한 연금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은행 영업망을 통해 첫 달에만 7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올해 1월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로 1조 6914억 원을 벌어들였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내는 금액으로, 보험상품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보험사별로 보면 농협생명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가 70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5991억 원 △ABL생명 1456억 원 △삼성생명 1255억 원 △한화생명 524억 원 △동양생명 349억 원 △푸른현대생명 205억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농협생명이 연금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것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 덕분이다. 연금보험도 결국 저축 상품인 만큼, 은행에 오

는 고객들의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이 이어지기 쉽다.

다양한 연금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이나 'NH세테크연금저축보험' 등 상품 인기도 한몫했다. 종신 혹은 원하는 기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수월하다. 회사 관계자는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높은 확정이율과 유연한 연금설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고 NH세테크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과 간편한 가입설계로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연구원이 전국 비연퇴자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세 미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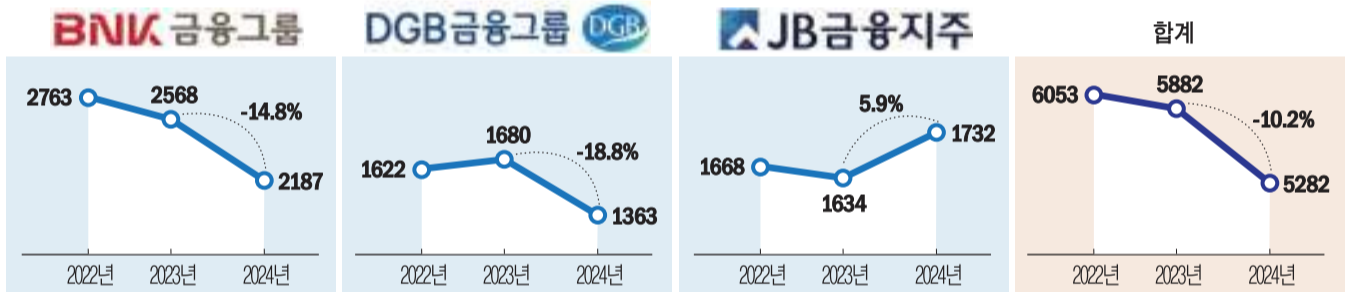
농협생명 관계자는 "연금보험 특성상 연말 연초에 가입이 많아 1분기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농협생명은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보사를 목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지방금융지주 1분기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지방금융지주 엇갈린 1분기 실적... JB만 웃나

BNK·DGB·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방금융지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흥풍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타격은 피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시기가 우세하다.

28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들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는 52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2억 원)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BNK금융은 지난해 2568억 원보다 14.8% 감소한 2187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봤다. DGB금융의 순이익 전망치는 1363억 원으로, 1년 전(1680억 원)보다 18.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BNK금융과 DGB금융은 각각 이달 30일과 다음달 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22일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은 1분기 1732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634억 원) 대비 약 6% 증가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이 유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대 지방은행지주 지배주주 순이익 BNK 15%·DGB 19% 감소 전망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 커진 영향 JB 6% 홀로 성장...순익 2위 기대 "선제적 충당금·순이자마진 개선에 올해 실적 개선세 보일 것" 의견도

순위도 바뀔 수 있다. 지난해 1분기당기 순이익은 BNK금융(2568억 원), DGB금융(1680억 원), JB금융(1634억 원) 순서였던 반면, 올해는 JB금융(1732억 원), DGB금융(1363억 원)으로 BNK·JB-DGB 순이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지방금융지주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관련 부담이 꼽힌다. 부동산 PF 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BNK금융의 부동산 PF 자산 규모는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9919억 원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브리지론"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브리지론에 대해 36%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손실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JB금융 역시 부동산 PF로 인한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리 계획으로 잠재적인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며 "3월 말 JB금융의 PF 잔액은 6조 6000억 원으로 브리지론은 캐피탈이 보유한 2000억 원 정도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JB금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한 데에는 캐피탈 자회사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영향이 컸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양호한 캐피탈 수익성과 그룹대출 성장률이 대손율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로 인해 지방금융지주의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작년 충당금 적립이 선제적으로 이뤄진 만큼 올해는 상대적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방은행 중에서는 NIM 상승폭이 가장 큰 BNK금융이 1분기 약 2420억 원 내외의 순익을 시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 서울 아파트 매매 월 4000건 돌파...집값 본격 반등할까

3월,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대출규제 강화 속 거래량 회복  
4월도 '4000건 상회' 이어질 듯  
거래금액도 작년 11월이후 증가  
집값 반등 기대 목소리 나오지만  
"금리인하 지연...상승폭 제한적"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2022년 이후 처음 4000건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소폭의 가격 상승도 관측되지만, 앞으로의 상승폭은 물가 반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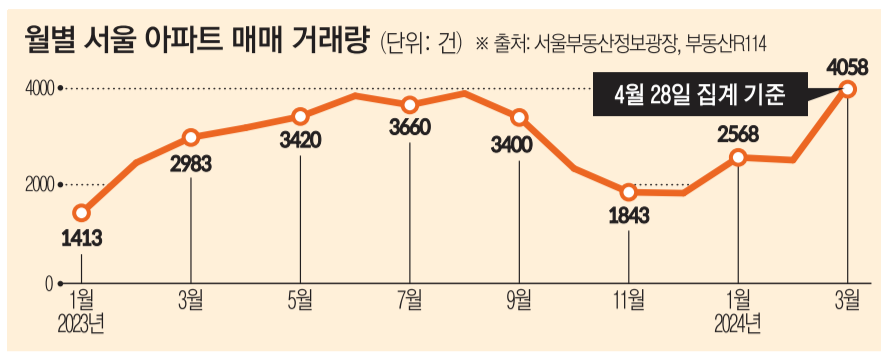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3월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000건을 돌파했다. 계약 이후 신고 기간은 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거래

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막상 집계 시작되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거래량이 포착됐다.

아직 집계 마감에 한참 남은 4월 거래량도 심상치 않다. 현재 1300건대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4월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을 넘어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5000건대가 될지를 궁금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3월과 4월 매매거래량이 4000건대를 넘어선 건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22~2023년에는 4000건은커녕 3000건도 넘지 못했다. 올해 3월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가 호황을 이뤘던 2021년 3월(3741건) 수준도 넘어섰다. 3월 거래량



을 기준으로 본다면 4000건대 회복은 2020년(4420건)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가. 정부는 올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가산금리가 추가되면 연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낮아지게 된다. 쉽게 말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투자가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실제 매매가는 소폭이나마 상승 중이다. 서울시정보광장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을 보면 지난해 11월(10억3395만 원) 이후 매달 조금씩 증가해 2월에는 10억9229만 원까지

올랐다. 28일 기준 3월 평균 거래액은 10억9995만 원이다.

그럼에도 이른 시간대에 집값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금의 매매거래량은 사실 절대적으로 높기보다 그동안 매우 낮았던 수치가 조금 올라왔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2년간 거래가 특별히 적었던 것이고, 거래량도 오르는 곳만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중동 지역의 전쟁 이슈,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며 "9월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집값 상승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je@

## 고독사 방지까지? ...건설업계 스마트홈 도입 잔걸음

건설업계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이 적용된 아파트 시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편의성을 향상시켜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자사 시공 아파트에 스마트홈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홈은 AI 등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아파트 내 주거 공간에 연동해 주거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와 선호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스마트홈플랫폼 '홈'을 출시했다. 홈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커뮤니티 시설 예약-문화 생활-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국내 주택관리 업체인 우리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홈플랫폼 '하이오티(Hi-oT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LH 스마트 홈 서비스인 LH 홈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LH

삼성 '홈'·현대 '하이오티' 스마트홈 플랫폼 잇따라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노약자 특화  
LH도 공공임대에 '홈즈' 앱

)를 개발했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로이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도 구축했다. 또 공동주택 준공·입주 후에도 전기차 충전기 증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설계에 반영·시공키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 스마트홈 서비스가 거동이 불

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쓰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I와 IoT를 활용해 공동주택 안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응급상황시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자동 전달하는 'AiQ스마트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 영역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입주하는 모든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분양 물량에만 적용하던 서비스 대상을 공공임대 물량까지 확대한다. 입주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홈즈' 앱을 설치하면 38가지 스마트 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고독사 방지' 기능이다. 홈즈 앱은 가구별 수도·전기·가스 사용횟수와 사용량을 분석해 고독사 징후가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통제실에 알람을 보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스마트홈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향후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협업을 통한 주거 편의성 강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노량진 최대어' 재개발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따내

사업비 1조... '오티에르' 단독입찰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최대 사업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내세워 단독 입찰한 바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은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은 노량진 일대 뉴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아파트 299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1조900억 원이다.

입지도 뛰어나 시공사 선정 전 많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하지만 정작 입찰 보증금을 낸 곳은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1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3.3㎡당 730만 원으로 제안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 오티에르 동작 조감도. 사진제공 포스코이앤씨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량진1구역 정비구역 면적이 넓고 총 2992가구가 제공되는 대단지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갖춘 자금력과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분양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지출을 줄여 조합원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간 조합 사업비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동시에 1년간 물가 인상 없이 공사비 지급도 유예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 걸맞게 노량진1구역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je@

## 대우건설, 업계 최초 '원전 품질경영' ISO 인증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을지로 본사에서 25일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백정환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영일 안전품질본부장, 배용주 안전품질담당임원, 서정욱 TUV SUD Korea 대표이사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 조직 전체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유럽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SUD(티유브이 슈드)가 발급한다. ISO 19443은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및 서비스(ITNS) 등을 공급하는 업체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

현재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은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의 전제 요건으로 ISO 19443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입찰 중인 체코 원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의 입찰 자격요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ISO 19443을 취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ISO 19443의 인증 취득을 통해 원자력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뛰어난 원자력 사업 안전·품질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첫째 주에는 599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59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등에서 청약의 진행한다.

모텔하우스를 여는 곳은 4곳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는 30일 개관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강캐슬리움센트럴파크',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 크황금역리저브'는 3일 오픈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29(월)	접수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2차 1순위
	오픈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4/30(화)	접수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2차 2순위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1순위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1순위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단지)4BL 1순위
5/2(목)	접수	강원	원주시	원동	원주푸르지오더센트럴 1순위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2순위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2순위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단지)4BL 2순위
5/3(금)	오픈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강캐슬리움센트럴파크(A8)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 크황금역리저브(1·2단지)
접수	강원	원주시	원동	원주푸르지오더센트럴 2순위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 오동운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사진)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독립수사기관으로 열심히 매진” 판사 출신 수사경험 부족 지적엔 “유능한 차장 선임통해 능력 발휘”**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매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추

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제가 형사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발휘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

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등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했다.

차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

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내년 의대 증원, 1500~1700명 예상

국립대 규모 확정돼야 결정될 듯 사립대 대부분 원안 유지 분위기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으로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은 일부 국립대에 그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들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행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분량은 국립대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일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모두 증원 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 탄력적 모집이 가능해져 이

중 50%인 45명만 뽑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에서 증원분 124명 중 절반인 62명만 늘려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에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의 경우는 조만간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확정한다. 이들 대학은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과 함께 정부에 ‘대학별 자율 증원’을 요청한 대학들이다.

사립대는 대부분 정부 원안을 따르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은 여전히 “자율 감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등 분위기가 다다. 다만 사립대인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 등 자율 감축을 고민 중이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립대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공사들의 활쏘기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 활터에서 열린 제63회 대통령기 전국 궁도 대회에서 공사들이 활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못 쓰면 ‘2차 피해’ ... 잘 쓰면 약 되는 ‘합의’

서소동 MSG

범행 뉘우치면 양형 참작되지만 피해자, 보복 가능성 우려로 기피 서로 합의 통해 감정 회복되기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가 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



한 피의자·피고인들에 의한 2차 가해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매번 심각하게 다투는 연인이 있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설정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을 넘어 기소돼 재판에 넘어졌다.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싸워 별건으로 고소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기’ ‘SNS 계정 삭제’ 등 서면 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처벌불원서에 걸었는데, 이를 어겼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감동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전달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되레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피해 학생의 예방과 함께 포용적인 시선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령이었던 장애 학생의 부모는 오열했고,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신을 보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합의를 꺼리지만, 가해자들은 합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감정도 대부분 정리한다”며 “합의 후 보복 행위는 드물어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거나 보복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공직자 검증시험 만들게 해달라”... 法 “국가 몫”

민간 연구소, 자격증 등록 소송 法 “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 자격증을 통해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불가로 결정했다.

A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단체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며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꽃 기자 pgot@



24일 오전 국내 최초로 도심 복합쇼핑몰에 조성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7층 배델 전용구장 '엠무브 배델 라운지'에서 기자가 배델을 체험하고 있다.



26일 오전 충북 청주 청주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코오롱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 도중 미디어 대상 레슨에서 기자가 피클볼을 체험하고 있다.

# 벽에 튕긴 공 넘겨도 득점... 힘보단 센스 메시·나달도 폭 빠진 '배델'

## 용산 아이파크몰 엠무브 배델 라운지

"배델(Padel)이요? 테니스보다 배우기 쉬워요. 랠리가 길게 이어지고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24일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7층 '엠무브 배델 라운지(MMOVE Padel Lounge)'.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라켓스포츠 배델을 서울 도심 복합쇼핑몰에 처음 구축한 필드홀딩스의 김완수 배델파트장 겸 코치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였다. 스페인에서 시작한 이 스포츠는 유럽·남미에서는 이미 대세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현재 전세계 2500만 명이 즐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러피안 게임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됐다. 유럽축구팬이라면 의외로 익숙할 수 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자택에 배델 경기장을 설치하고 랠리를 즐기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기도 했다. '테니스 황제' 라파엘 나달도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배델 레슨을 하고 있다. 대체 이들 스포츠 스타는 배델의 어떤 매력에 빠진 것일까 궁금했다.

이런 의문을 풀자마자, 김 파트장은 의욕 넘치는 레슨에 즉각 돌입했다. 그는 "초보자도 10분이면 금방 배운다"고 했지만, 생각만큼 마냥 쉽지는 않았다. 과거라켓볼에 테니스도 쳤지만, 첫 대면한라켓부터 낯설었다. 기존 테니스라켓보다는 짧고 가벼웠으나

촉촉히 연결된 줄(스트링) 대신 작은 구멍이 뚫린 다소 큰 탁구채 같았다. 경기장 크기(20m×10m)는 테니스코트보다 약간 작지만, 야외 구장임에도 사방이 펜스와 유리벽으로 막혀있는 점이 특이했다. 자세나 경기방식, 점수 내는 방식은 테니스와 거의 비슷하다. 공도 테니스공과 비슷한 사이즈다. 다만 공이 코트라인 바깥으로 빠졌을 때 경기가 중단되는 테니스와 달리, 유리벽에 맞은 공이 튕겨질때 되받아쳐 상대진영에 보내도 득점이 되는 점이 다르다. 이런 룰 덕분에 참가자들은 랠리를 오래 즐길 수 있다. 선수의 파워와 스피드보다는 '센스'가 점수를 내는 비결이라, 전략과 전술도 무궁무진해진다.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년정도 지난 배델은 입소문을 타며 안착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전용구장 등 인프라인데, 앞서 김 파트장 등이 경기도 김포시에 국내 유일 배델 코트를 운영하고 레슨을 해왔을 뿐이다. 그러다 최근 대한배델협회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번 엠무브 배델 라운지의 용산 아이파크몰 입점으로 저변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새롭고도 특별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험하려는 MZ세대라, 이들 덕분에 배델이 새로운 스포츠 트렌드로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사진 배근미 기자 athena3507@

# 1시간만 배워도 랠리 가능... 진입장벽 낮네 빌 게이츠도 즐기는 '피클볼'

## 코오롱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

26일 오전 찾은 충북 청주 청주국제테니스장. '코오롱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 대회가 한창인 이곳에선 관람객의 열띤 응원전 속에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가 한창이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스포츠브랜드 헤드가 후원한 이 대회는 약 500명이 참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렸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선수 연령대도 다양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라켓스포츠 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미국에서만 약 4000만 명이 즐기는 등 선풍적인 인기다. 미국 스포츠피트니스산업협회(SFIA)가 뽑은 '미국 내 급성장 스포츠' 1위로도 선정됐다. 특히 빌게이츠부터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배우 제이미 폭스 등 미국 유명인들의 애착 스포츠로 알려져 더 화제다.

피클볼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진입장벽'이다. 통상 3~6개월은 배워야 겨우 게임이 가능한 테니스와 달리 피클볼은 1시간 정도면 랠리가 된다. 게임 규칙도 단순하다. 서버 또는 서버의 팀이 랠리에서 승리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먼저 11점을 내면 이긴다. 패들로 불리는 라켓과 공, 네트만 있으면 된다. 패들로 불리는 라켓과 공, 네트만 있으면 된다. 별도의 공간제약이 없는 셈이다.

피클볼을 체험해보니 역시 쉬웠다. 패들로 상대방 코트로 공을 넘기면 된다 상대방이 공을 놓치면 이긴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한 번쯤 경험했다면 금방 익숙해진다. 패들은 테니스라켓보다는 크기가 작고, 탁구라켓보다는 큰 중간 정도 크기다. 200g를 조금 넘는 무게로 가벼워, 한 손으로 들고 휘두르기 쉽다. 피클볼 공은 성인 주먹 크기로 플라스틱 소재다. 공기저항 조절과 안정성을 위해 공 표면엔 여러 개 작은 구멍을 뚫고, 내부는 비어 있다. 무엇보다 '타격감'이 좋았다. 라켓으로 공을 타격할 때마다 나는 경쾌한 소리에 즐거움은 배가 됐다. 피클볼 경기 코트는 테니스 코트의 3분의 1 크기(20피트×44피트)로 매우 작다. 넓은 공간이 없어도 네트만 있다면 좁은 곳이라도 경기 무대가 된다. 코트 크기가 작다고 운동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날 낮 온도가 25도로 덥기도 했지만, 경기 5분여 만에 금세 땀이 흘렀다.

헤드는 이번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피클볼 라인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저변을 확대, 피클볼의 대중화를 통해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 피클볼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헤드의 주력인 테니스와 피클볼까지 넘나들며 입을 수 있는 의류와 신발도 선보일 예정이다.

청주·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문화체육관광부
THE HYUNDAI

## 제 39회 현대백화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그림 주제 행복한 집 접수 기간 5. 1(수) - 5. 26(일)  
 접수 방법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앱 참조  
 결과 발표 6. 19(수), 홈페이지 발표 및 수상자 개별 안내



자세히 보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명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버블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섬닷컴 | 현대리버트 | 현대 이지텔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제공 삼성전자

## 평택·美 테일러 이어 용인 생산거점 확대... AI 반도체 전폭 투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구개발(R&D), 전략적 시설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R&D 투자에 28조34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6조57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24조9200억 원을 뛰어넘었다. 시설 투자액은 53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에 버금간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부분에서는 2022년 3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게이트올라운드(GAA) 공정을 세계 최초 양산하고, 미래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테일러에 착공하는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졌다. 특히 메모리 사업에서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고용량 제품 중심으로 최적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서버와 프리미엄 모바일 제품 분야에서 △DDR5 △LPDDR5x △HBM 등 D램 첨단 제품의 비중을 더 확대한다. 낸드 역시 V7, V8 등 차세대 공정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운드리에는 향후 견고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적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갖춘 GAA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8인치 공정부터 최신 GAA 공정까지 팹리스 고객의 제품 설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가장 최적화된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계속 혁신해 나가며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시장과 고객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 평택과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클린룸을 건설하고 있다. 평택과 테일러에 이어 용인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 클린룸의 규모는 2021년 대비 7.3배 확대될 전망이다.

## 세계 최고수준 AI메모리 개발로 국가경쟁력 '업' 2026년까지 68조 투자...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SK그룹은 글로벌 지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SK하이닉스의 HBM3E. 사진제공 SK그룹

SK하이닉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인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에서 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전통관극(TSV)' 기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내놓은 이래 MR-MUF(Mass Reflow-Molded Under-Fill), 어드밴스드 MR-MUF 등 선행 기술을 접목하며 지속적인 성능 향상에 한창이다.

지난해 4월 SK하이닉스는 24기가비트(Gb) 12단 HBM3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어드밴스드 MR-MUF 기술을 적용해 공정 효율성과 제품 성능 안정성을 강화했다. TSV 기술을 활용해 기존 대비 40% 얇은 D램 단품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16GB 제품과 같은 높이로 제품을 구현했다.

SK은 국제 무대에서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진화된 급속충전 성능을 갖춘 어드밴스드 SF(Super Fast) 배터리로 '2024 인터배터리 어워드'에서 '급속충전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는 기존의 SF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9% 높으면서 급속충전 시간은 유지한 혁신 제품이다. 에너지 밀도가 같을 경우 기존 SF 배터리보다 급속충전 성능을 18%가량 개선했다. 보통 에너지 밀도가 10% 증가하면 급속충전 시간이 20% 증가한다.

이 배터리는 SK이 고유의 급속충전 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해 얻어냈다. 특수 코팅공법을 통해 음극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음극 정렬 공법을 적용해 리튬이온 이동 경로를 단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26년까지 3년 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31조1000억 원 △경상투자 35조3000억 원 △전략투자 1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체계 구축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체의 46%를 투자한다. 경상투자는 연구 인프라 확충, 전기차(EV) 전용공장 신증설 및 계열사 동반투자, GBC 프로젝트, IT 역량 강화 등에 이뤄진다. 올해 2분기에는 기아 광명 이보(EVO) 플랜트를 완공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화성 이보 플랜트를 준공한다. 지난해 11월 건설을 시작한 울산 EV 전용 공장은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략투자를 집행한다. 산업군별로는 완성차 부문이 전체 투자액의 약



현대자동차 울산 EV전용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63%인 42조8000억 원을 차지한다. 전동화는 물론 SDV 가속화, 수소 생태계 구축, AAM, 로보틱스 등의 영역에 투자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28년 상용화가 목표인 미래항공교통(AAM) 기체 개발 및 핵심기술 내재화에 주력한다.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및 수소버스·트럭을 개발하는 등 수소 산업 밸류체인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밖에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부문 등에서도 기술 개발, 신사업 발굴, 핵심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5조2000억 원의 맞춤형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 진화하는 '엑사원' ... 글로벌 AI 우수인재 유치도



LG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과감한 투자로 혁신 기술을 개발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마곡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3'을 열고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EXAONE) 2.0'을 공개했다. 2021년 첫선을 보인 '엑사원'의 진화 버전이다. LG AI연구원은 LG 계열사와 국내외 파트너사들이 엑사원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엑사원 2.0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모델로 개발됐다. 학습 데이터 양도 기존 모델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추론 처리 시간은 25%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70% 줄여 비용도 약 78% 절감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2.0을 기반으로 3대 플랫폼인 '유니버스(언어)', '디스커버리(난제)', '아틀리에(장작)'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상담 자동화, 소재 및 신약 개발,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난해 7월 마곡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AI 토크 콘서트 2023'에서 엑사원 디스커버리(EXAONE Discover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지난해 7월부터는 특허청과 함께 특허 전용 대규모 언어모델(LLM) 구축 작업도 시작했다.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해 88억 파라미터 규모로 설계한 모델을 공개하며, 문장 요약 및 번역 등 전체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LG AI연구원과 특허청은 모델을 고도화해 특허 검색 및 분류 등 AI 특허 심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AI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세계적인 AI 학회에서 LG 주요 계열사들과 최신 AI 기술 시연과 채용도 진행한다.

## AI·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박차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 확대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엔젤리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등 4대 신성장 테마를 중심으로 신사업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롯데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37조 원을 투입해 4대 신성장 테마를 주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옛 롯데정보통신)'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비즈니스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를 그룹 전 계열사에 도입했다. '아이멤버'는 파운데이션 모델 라이선스를 구축해 기업 내부 정보를 학습시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올해 초 CES 2024에서 소품, 엔터테인먼트 등을 극사실적 비주얼과 인터랙티브 기술로 접목해 만든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연구강화를 위해 2월 기초소재사업과 첨단소재사업 특성에



28일 열린 롯데지주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신사업 전시관에 마련된 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맞춘 AI 조직을 신설해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030년까지 글로벌 톱10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로 2030년까지 인건 송도에 3개의 메가플랜트를 조성하고,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추게 예정이다.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는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는 올해 2월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팩토리 청주 신공장을 준공해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증대됐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4000기 수준이던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7500기까지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조립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 한화그룹

##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 사업재편... 미래 신규 사업 발굴



한화그룹은 올해에도 지속해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재편과 투자로 사업간 시너지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항공우주사업 부문에서 한화그룹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

이스 시대'에 맞춰 우주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8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은 2022년 그룹 내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면서 우주산업 후발주자인 한국에서 중장기적인 우주탐사 및 자원확보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 투자 중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고효율태양광 셀·모듈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전력솔루션 사업, 수소 혼소 기술, 풍력 발전 사업 등에서의 투자로 글로벌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주요 태양광 시장인 미국·독일·한국·영국·일본 등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허태수 "스타트업 벤처, GS 성장의 필수 파트너"



GS그룹은 신사업 진행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는 '신사업 공유회'를 통해 신사업 창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2024 GS 신사업 공유회'에는 허태수 GS 회장을 비롯해 GS 계열사 사장단과 신사업 담당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주)GS를 비롯해 GS퓨처스, GS벤처스 등 투자사가 전체 신사업 전략과 투자 현황을 소개한 것에 이어 GS칼텍스와 GS에너지, GS EPS 등 계열사는 산업바이오, 순환경제, 전기차(EV)충전 등 주요 신사업 영역의 사업화 현황을 점검했다.

공유회에서는 GS가 그동안 투자를 통해 확보해 온 신기술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 3년 동안 디지털·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확보하며 기존 사업과의 접목에 공을 들여왔다.

산업바이오 영역에서는 GS가 축적해온 바이오 신기술 투자가 GS칼텍스 등 기존 사업역량과 결합해 신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GS퓨처스와 GS벤처스 투자법인이 앞장서 바이오



허태수 GS 회장이 '2024 GS 신사업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GS그룹

테크 기업을 발굴해왔다. 자이모컴, 젤토어, 데뷰바이오텍, 퍼먼트, 카프라이오텍 등 해외 바이오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들이 대표적이다.

GS는 바이오테크 벤처의 신물질 개발 기술에 GS가 축적한 양산 역량 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가 10년 동안 기술연구소 등을 통해 석유화학 대체 물질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양산 체계를 갖춰나간 것이 그 시작이다.

허 회장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주인공은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임이 확실하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업계야말로 GS그룹의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 파트너"라고 말했다.

## 밥상물가 잡는 품질 비결... '피코크 비밀연구소'



이마트는 피코크 상품을 외식에 버금가는 '잘 차려진 한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특히 피코크 품질 혁신을 위해 '비밀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비밀연구소에는 조선히출신 셰프를 비롯 전문 셰프들이 근무하고 있다. 각 셰프들은 중식, 오리엔탈, 한식, 웨스턴, 베이커리·디저트, 음료 등 제품 개발을 담당한다.

피코크 비밀연구소는 조리실, 메뉴 개발실, 아이디어 회의실은 물론 상품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염도·당도·산도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품질 관리실까지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리 관련 전문적인 수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측정된 데이터는 피코크 품질 향상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사용된다. 이는 피코크가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식비를 절약해주는 것은 물론, 그 특별한 맛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피코크 쟁반짜장은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만들어진 특화 상품이다. 피코크 쟁반짜장은 올해 1월 출시 이후 3개월간 무려 3만 개가 넘게 팔렸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피코크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이바



고객이 이마트 매장에서 피코크 밀키트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지하기 위해 '상품 리뉴얼'을 진행, 가격은 동결하되 양은 늘린 '중량 리뉴얼' 상품 10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마트는 피코크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피코크 가격 안정화에도 나서 대한민국 대표 자체 브랜드(PB)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병간 PL상품 담당은 "피코크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비밀 연구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피코크를 외식 이상의 맛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바이오 R&D 역량강화... 시장 판도 바꾼다



CJ제일제당은 연구개발(R&D) 및 제조역량을 앞세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별화된 냉동·상온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외식 고메 소비바치킨을 출시해 6개월 만에 300억원, 8개월 만에 500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치킨 시장 판도를 바꿨다.

이 제품은 CJ제일제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 소스를 얇고 균일하게 코팅하듯 입혔다.

조리 후에도 치킨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이 유지돼 집에서 전문점 치킨 못지않은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이처럼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로 차별화된 신제품을 계속해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식품분야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국내 식물성 식품 시장을 겨냥해 론칭한 플랜테이블은 출시 후 작년 말까지 누적 판매량 약 800만 개를 돌파했다. CJ제일제당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 단백질인 'TVP'를 활용해 고기맛과 탄력 있는 식감을 구현한 점이 인기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고메 소비바치킨 양념 2종 제품. 사진제공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에서도 활발한 R&D 투자와 외부 협업을 통한 혁신을 이어오고 있다.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바이오사업부문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사료용 아미노산 분야에서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을 비롯한 총 8종의 글로벌 최다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식품 조미소재 연구개발 또한 글로벌 뉴트리션(Nutrition, 영양)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바이오텍 에미온(Emmyon)과 '우르솔산 활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근감소증을 예방·개선하는 원료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인공지능→공감지능"... 고객맞춤 AI가전 선도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고, 개발을 가속화해 가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사용자를 더 배려하고 공감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AI를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LG전자는 공감지능 구현을 위한 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하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10여 종의 주요 제품에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LG전자의 공감지능이 적용된 2024년형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 에어컨은 'AI 스마트케어'로 실시간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 온도를 알아서 조절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쾌적함을 제공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에도 공감지능이 적용됐다.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위시콤보는 AI가 고객이 투입한 세탁물의 무게, 습도, 재질을 분석해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가지 모션 중 옷감을 보호하는 최적의 모션으로 세탁·건조한다.

LG전자는 2011년 업계 최초로 가전에 와이파이가



LG전자 온디바이스 AI칩 'DQ-C'. 사진제공 LG전자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와이파이가 모듈을 전 제품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도 선보였다. 2022년에는 고객이 원할 때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로 추가하는 'UP가전'도 내놨다.

올해는 가전 전용 AI칩 DQ-C의 적용 제품군을 현재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5가지에서 8가지 제품군 46개 모델(국내 기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LG전자는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가전 전용 AI칩을 개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AI칩의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가전 제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 'LS스마트랙'. 사진제공 LS그룹



## 'AI·빅데이터·스마트팩토리' 접목 디지털 역량 강화

LS그룹이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 등을 접목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은 올해부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강원도 동해시 해저케이블 공장에제조운영관리(MOM) 시스템을 도입했다. MOM은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LS전선은 지중케이블과 통신케이블 등 다른 제품군에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2021년부터 전력·자동화 사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LS글로벌로부터 물적 분할한 LS ITC를 인수했다. LS ITC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등에 필요한 산업·IT 융합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IT 전문 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력·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LSMnM은 온산제련소의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인 'ODS'(Onsan Digital Smelter)를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온산제련소의 모든 생산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하고,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LS엠트론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 'LS스마트랙'과 원격관리 서비스 '아이트랙터'를 출시해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스마트랙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트랙터가 스스로 농경지에서 작업하는 첨단 트랙터다.

## 지속성장 '변화의 DNA'... SMR·수소산업 선도



올해 창립 128주년을 맞는 두산그룹이 '변화DNA'를 바탕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첨단 미래기술을 적용한 첨단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두산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원전(SMR)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의 SMR이 개발되는 가운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엑스에너지 등 글로벌 SMR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첫 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최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차세대 에너지 자원인 수소 분야에서도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월 창원에 EPC(설계·조달·시공)를 맡은 국내 첫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수소버스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하루 5톤(t), 연간 180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천연가스를 개질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개발 중인 수소터빈 모형. 사진제공 두산에너지빌리티

해 고순도의 기체 수소를 생산한 뒤 핵심 과정인 콜드박스 설비를 통해 생산된다.

2019년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7년 400메가와트(MW)급 수소 터빈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수소터빈 연소기의 30% 혼소 시험에 성공했으며, 국책 과제로 50% 수소 혼소 및 수소 전소 연소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연료전지 시장도 주도하고 있다. 주력인 발전용 인산형연료전지(PAFC)를 비롯해 현재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등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의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 자체기술로 혁신...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추진



효성은 '자체 개발한 원천 소재는 혁신 제품의 근간이며 경쟁력 창출의 핵심'이라는 연구개발(R&D) 철학을 가지고 있다.

1971년 국내 최초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인 효성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1978년 중공업연구소를 설립했다.

효성티앤씨는 나일론 리사이클 원사,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원사에 이어 2019년 세계 최초로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100% 리사이클 스판덱스를 상용화했다. 2022년 세계 최초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인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했다. 4년 간의 집중 투자와 연구 끝에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만든 성과다.

2022년에는 철보다 강도가 14배 이상 높은 초고강도 'H3065(T-1000급)' 탄소섬유도 개발했다.

2028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 전주탄소섬유공장을 연산 2만4000톤(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



1971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연구소인 효성기술원. 사진제공 효성그룹

재 3차 증설을 완료했고 연산 9000톤 생산역량을 갖췄다. 또 울산에 2003년 자체 기술로 개발, 2009년 상업화에 성공한 아라미드 생산 공장도 운영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오랜 기간 쌓아온 회전기과 압축기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소충전소 분야에 진출했다. 생산·조립·건립에 이르기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화학기업 린데와 협력해 울산시 효성화학 용연공장 부지에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립하고 있다. 완공 시기에 맞춰 대형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30곳도 건립 중이다.

## 탄소중립 목표... 화학적 재생기술 개발 '올인'



코오롱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확대해 모든 생산 공정에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말 주력 사업인 아라미드 국내 1위 생산능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아라미드 펄프와 석유수지(PMR) 증설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 투자 및 생분해 플라스틱 등 화학적 재생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SPE'(지속가능한 고분자 생태계)라는 친환경 성장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

SPE는 친환경 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폐기 후 재활용 또는 생분해를 통해 생태계에서 순환되는 사이클 구축이 핵심이다. 이에 차세대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퓨라노에이트(PEF) 및 폴리히드록시 알카노에이트(PHA)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SPE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ENP는 2018년 경북 김천에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와 50대 50 비율로 합작한 폴리옥시메틸렌(POM) 공장을 준공했다. POM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의 일종으로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가벼워 자



코오롱 원앤엔리타워 전경. 사진제공 코오롱그룹

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기어류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기존 생산설비와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5만톤(t)의 POM 생산능력과 제조경쟁력을 확보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올해 R&BD(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본부를 확대 재편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그룹 대내외 디지털 전환에 주력한다.

전사 AI 인프라를 통합한 '브레인랩'에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제 검증하고, 엔터프라이즈용 AI 플랫폼 '코아이웍스(KOAIWORX)'도 개발해 그룹 내 공통 서비스 적용을 앞두고 있다.

## 미래 먹거리 해상풍력 낙점... 철강재 공급 박차



현대제철이 철강 본원의 경쟁력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최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구성원들에게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사장은 "지난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며 "올해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실행하기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은 전 세계 철강업계가 과도한 설비확장으로 공급과잉과 수급 불균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한창이다.

고급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2냉연공장은 기존 초고장력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성형성을 향상시킨 3세대 강판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신규 열처리 설비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 2분기 상업 생산이 목표다.

3세대 강판은 기존 초고장력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성형성을 향상한 강판이다. 곡선 성형이 가능하고, 강도를 기존 1.07기가파스칼(GPa)에서 1.2GPa로 강화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가 된 전기차 시장에 적합한 강판으로 평가된다.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사진제공 현대제철

1후판공장의 열처리재 생산능력을 연 15만톤(t)에서 30만t으로 확대한다. 올해 10월 시운전을 앞둔 1후판공장의 신규 열처리 설비는 지난해 3월 설비 계약 이후 현재 토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

현대제철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상풍력 시장을 점 찍었다. 주로 해상풍력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강재를 공급을 목표로 미래 수익성이 커질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현대제철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대만 TPC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국내외 아시아를 넘어 북미·호주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해외 갈 때 아직도 현금 환전해?”



환전 수수료 없고

현금 들고다니기 불안한데

왜안 SOL?

써보면 왜 쓰는지 아는

SOL 트래블 체크카드

[유의사항] - 이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 드립니다. - 전월실적 및 혜택 상세기준 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 혜택 1. 환전 100% 우대, 재환전 50% 우대 2. 국내 편의점 5% 및 후불교통 1% 할인, 국별 특별 가맹점 5% 할인(일본, 베트남, 미국) 3. 외화계좌 특별금리(연 USD 2.0%, 유로 1.5%)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1050-1호(2024.03.12~2025.03.11) \*신한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312-Dpr-001호(2024.03.12~2025.03.11)



# 방경만 사장, 인니서 취임 후 첫 '글로벌 현장경영'

## KT&G 2·3공장 착공식

한 해 210억 개비 담배 생산  
“아태·중동 시장 대상으로 한  
수출사업 허브이자 성장동력”  
1공장 채용인 간담회도 가져

방경만 KT&G 사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취임 후 첫 글로벌 현장 경영에 나섰다.

28일 KT&G에 따르면 방 사장은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2·3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데 이어 아태본부(CIC)를 방문해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수라바야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방 사장과 아디 까르요노(Adhy Karyono) 동부자바주 주지사, 안디 마울라나(Andi Maulana)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 한중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 8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2·3공장은 19만㎡ 규모 부지에 연간 210억 개비의 담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방경만(오른쪽 다섯 번째) KT&G 사장과 아디 까르요노(여섯 번째)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주지사, 안디 마울라나(일곱 번째)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26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KT&G 인도네시아 2·3공장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T&G

된다. KT&G는 인도네시아를 기존 공장 포함해 연간 약 350억 개비에 달하는 생산 규모를 갖춘 해외 최대 생산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2·3공장 건립은 KT&G가 지난해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투자의 일환이다. 앞서 KT&G는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전자담배(NGP)·해외관련(글로벌CC)·건강기능식품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성장 전략

을 공개했다. 향후 해외 직접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 사장은 착공식에서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태 및 중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KT&G 수출사업의 주요 허브로서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사장은 경영진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 바틱(BATIK)을 입고 수라바야에 있는 1공장을 찾아 현지 채용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착공식 전날인 25일에는 자카르타 소재의 아태본부와 인도네시아법인서부자카르타 지점을 방문해 업무현황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현지 영업 일선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KT&G 관계자는 이번 방 사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해 “방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인도네시아를 해외 현장 경영 행선지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영도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알타이주(州)에서 유라시아 권역 수출용 담배를 생산하는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전 공장에 전자담배(NGP)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등 국내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아태본부·유라시아본부를 CIC 체제로 전환하고, 해외 권역별 본부에 부사장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며 글로벌 시장의 공격적 확대와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 6월 G7 정상회담 교황, 사상 첫 참석

## 伊정부 “AI 세션에 초청”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6월 이탈리아 폴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화상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G7 정상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후 바티칸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멜로니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첫 번째 교황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에 관한 세션에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황은 연례 평화 메시지에서 AI가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 조약 마련을 촉구하는 등 AI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바티칸 내 생명윤리 싱크탱크인 교황청 생명학술원 역시 최근 AI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에 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열고 빅테크와 학술기관, 비정부기구(NGO)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교황을 G7 정상회담에 초대할 것은 이런 행보를 배경으로 한다. G7 정상회담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폴리아의 보르고 예나치아 리조트에서 열린다.

고대영 기자 kodae00@·사진 AFP연합뉴스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방문 봉사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아끼지 않겠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그룹 임직원 20여 명과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벌였다.

28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다자녀 가정을 찾아 환경 정리, 벽지 교체 등 봉사활동을 했다.

신한금융은 앞서 2월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공헌 캠페인 ‘솔선수범 릴레이’의 두 번째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선정했다.

이후 임직원 기부를 통해 약 8000만 원의 성금을 모았고, 그룹의 기부금을 더해 1억50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기로 했다.

진 회장은 봉사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보람이 컸다”며 “신한금융은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법근 기자 nova@

# ‘고령 약점’ 바이든의 자학개고 “난 6살 아이와 경쟁하는 어른”

조 바이든(81·사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농담을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연설에서 “2024년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물론 나이가 문제”라면서 “나는 6살짜리 아이와 경쟁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을 ‘자학개고’ 소재로 삼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린 아이에 비유하며 저격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트럼프의 유일한 공통점은 나이뿐이라고 언급하면서 “나의 부통령은 실제로 나를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양심상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연설 중반에는 진지한 톤으로 기자단에 “어떤 이들은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잘못됐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난 진실으로 여러분에게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의 심각함을 직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사진 UPI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부산시와 해양생태계 환경 개선 ‘맞손’

## 잡피 서식지 조성...2억 지원

신세계백화점은 부산시와 손잡고 해양 생태계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26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부산 연안 ‘바다 생태숲 조성’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순민 상무(센텀시티점장), 이원호 상무(CSR담당), 박형준 부산시장, 김병기 해양농수산물국장, 이국진 수산정책

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세계백화점과 부산시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수산자원 및 생물 다양성 증진 △해양생태환경 개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순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26년까지 부산 연안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증대를 위해 해양보호생물인 잡피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부산 기장 임랑 해역에 1헥타르(ha) 규모(약 3000평)의 거머리말 생육지를 조성하고 잡피 이식 개체 형태, 생육 밀도, 생



체량 측정을 통해 종 다양성 증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총 2억 원을 지원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신세계백화점 이원호 상무(CSR담당), 박순민 상무(센텀시티점장), 박주형 대표이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물국장, 이국진 수산정책과장.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박 대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시대의 흐름으로 바다의 도시 부산 미래 시대를 위한 해양 신세계를 여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 부음

## 고속철도·4대강 추진...정종환 前 장관

고속철도(KTX)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5시 19분께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77세.



1946년(호적상 1948년) 충남 청양생

인 고인은 청양농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행정고시(10회)로 공직에 들어가 1983년 교통부 수송조정과장으로 일하면서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다.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수송정책실장을 거쳐 1998~2001년 철도청장으로 있으면서 경부고속철도(2004년 1단계 개통) 건설을 추진했고, 고속철도 완공을 앞두고 200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옮겼다.

유족은 부인 조정자 씨와 사이에 3남(정성욱·정진욱·정재욱)과 며느리 고경난·이정은·이연이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29일 오전이다. 02-2072-2091

▲정순덕 씨 별세, 순회재(KB증권 남부지역본부장)·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 씨 모친상 = 2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

▲김희성 씨 별세, 김대호(조달청 사무

관) 씨 부친상·윤현숙(충남인터넷고 교사) 씨 시부상 = 28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

▲윤은정 씨 별세, 임민규(한국허치슨 터미널 상무) 씨 배우자상 = 28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51-503-0770

▲강재수 씨 별세, 강수진(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씨 부친상 = 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30일, 02-3410-3151

김정례 칼럼



칼럼니스트·前 부산고대 교수

#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은 불편부당 원칙에 따른 것이다. 권리의 보편성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대상에 적용한다는 보편성은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편성을 아무 데나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 보편성은 실질적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공염불이 아닌 정책 실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를 무시하면 불편부당 원칙은 공도동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포퓰리즘에 악용된다. 코로나 시국에서 살포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지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와 가계에 모두 재정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줄고, 그만큼 외국인 취업 기회도 줄어 정책의 혜택 대상도 축소된다. 또한 시급제 채택으로 이 정책의 도입 취지도 상당히 퇴색된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 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 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쫓아야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형식적 획일성이 아닌 실질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 정책은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내국인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자국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종일 거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은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들의 취업 기회 박탈 때문에 침해된다. 도우미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은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은 내국인의 취업 기회마저 감소시켜 버린다. 어떤 경우든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의는 획일적 보편성을 내세운 화려한 정치구호와 선동이 아닌 실행 가능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사안별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상호 이익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현란한 미사여구에 능통한 법대 교수가 지어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은 실행력이 빠진 정치구호로 오히려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장애일 뿐이다.

##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의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 개혁(연차 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천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동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 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하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유예조치 하자는 방향이고, 여당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

시론

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진하자는 의견이다.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는 보도와 같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기업인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수당과 같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회적 대화 통한 신중한 접근 절실해

이외에도 현행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 또는 현행법상 정년은 유지하되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공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신청시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자칫 정부 여당과 야권이 극한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춤한 현실에서 야당의 노동공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모쪼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노트북 너머

김은재  
정치경제부 기자



저명한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저서에서 '해킹'의 정의를 바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피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계' 부수진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해킹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전산 시스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에도 해커들이 드글거린다. 그들은 법률을 해킹한다.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해커는 야권이다. 그들은 수석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

분에 21대는 4년 내내 '불통 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오만한 해커다. 국민다수가 민주당을 택했다더라도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의정 방향과 법안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 '차선책'이었을 뿐이다. 선구제 후구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평평 뿌릴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심보가 더 못 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무능력하기까지 해서 자신들의 본분조차 잊은 듯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냈더니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5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심산이다.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일만 남았다. 법야권 192석이란 더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부팅만으론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용히 포맷 버튼을 찾아본다.

silverash@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엘프리드 히치콕 명언

"모든 성공의 비결은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당신은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교육도 쓸모가 없다."

미국 영화감독. '암살자의 집', '39계단' 등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연출하는 '히치콕 터치'를 창출해 스릴러 영화라는 장르를 확립한 그는 그 분야의 일인자다. 대표작은 '현기증' '사이코' '새' 등.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99~1980.

☆ 고사성어 / 관인대도(寬仁大度)

마음이 너그럽고 어질며 도량이 넓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너그럽게 포용하는 인품을 지닌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사용된다. 흔히 쓰는 '관대(寬大)하다'라는 말은 이 말에서 비롯됐다. 출전 주서(周書) 제35권 설선전(薛善傳). "우문 승상은 관인대도 하며, 패왕의 책략을 지니고 있다[宇文丞相寬仁大度有霸王之略]."

☆ 시사상식 / 시장경보제도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경보하는 제도다. 투자주의 → 투자 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나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이 슈화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수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의사 증원보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해결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통계를 보이는데, 두 나라 공히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1000명당 병상 수에 있어서는 12.8개 및 12.6개로 OECD 국가 중 월등히 앞선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비용 대비 기대수명이 높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에 따른 사망률은 매우 낮아 기대수명은 최상위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 질은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본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

가 일본은 84.9%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62.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의 의사 증원 지지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커지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서 증원 방침 고수가 지지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이슈는 국가를 조직으로 보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인력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미래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없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다른 분야의 인력을 줄이면서까

### 논현로

김영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지 의사들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AI와 로봇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1인당 노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인간 의사는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다른 직업 대비 의사 비중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고객들은 단지 “빠른 말”을 원한다고 말할 뿐이라는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하며, 기업

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듣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말”을 원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사람들은 보다 빠르게

먼 거리를 이동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으며, 이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 즉 고객들이 원하게 될 제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열망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열망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략 프로세스에서 전략 수립과 실행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는 전략을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은 참여를 이끌어낸다. 참여 없는 실행의 결과는 실패한 전략이다. 따라서 의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공감하고, 정책 실행의 결과 의사와 우리 국민들, 의대 증원에 따른 타격을 걱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겪게 될 긍정적인 미래의 삶과 이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얻는 데 보다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

## 尹·李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자유 회담 형식으로 1시간가량 차를 마신다고 한다. 정치 복원의 실마리라는 측면에서부터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는 못한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선 후와 완급을 가리면서 현안 조율에 나설 일이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먹거리 물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대 올랐다.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상승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정치에 등을 돌린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먹거리만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 2월과 3월 각각 3.1%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와 맞물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4월 지표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여력은 추나고, 자영업자 고통 또한 크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 결과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21.52%인 17만6258개가 폐업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의 2배에 가깝다. 자영업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금융감

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급등했다고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지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0.32%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보다 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른 시점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미 기준금리는 외려 오를지도 모른다. 지금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국내 금리 인하를 선부르게 합장할 국면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이런 환경에서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먼저 정치권이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4월 민심의 명령대로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대야당 또한 완력이 아니라 대화와 상식으로 국정을 풀어야 한다. 양쪽 다 오만과 독선은 독약이란 점을 명심하면서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협치는 장이 서기도 전에 물 거품이 된다.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알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 21세기 본초자오선

### 마감 후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大航海時代)’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열강은 이때부터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남쪽으로는 새 항로를 개척하며 아프리카를 돌아 나왔고, 그 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들은 이 바닷길을 앞세워 식민 통치까지 확대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한 셈이지요.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는 별자리가 필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나침반으로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아나선 것이지요. 다만 짙은 구름이 하늘을 막아설 때면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 140년 전 서구 열강이 임의로 날짜선 정해

결국 이들은 지도 위에 새겨넣을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땅 또는 바다 위의 특정 지점을 숫자로 객관화했지요. 마침내 19세기 말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1884년 미국 워싱턴 국제회의에서는 본초자오선, 즉 경도 0 지점을 결정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그곳입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이 모여 그들끼리 결정한 것이지요.

영국은 일찌감치 방대한 우주 관측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당위성과 발언의 무게를 앞세워 태평양 항가운데 날짜선 경선을 긋는데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세계를 지배했던 이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지녔다는 걸 고려하면 이를 마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구 열강이 자기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위도와 경도를 결정하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884년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맹목적으로 청나라에 의존하고 그들만 섬기던 조선 왕조에 맞서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었지요. 3일 만에

무너진 정변이었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혁명이었습니다.

기초과학을 시작으로 인문학과 천문학까지 발전시킨 19세기 유럽과 같은 시기 조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현재를 빛대보면 140년 전 조선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재이지요.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국가가 우주개척에 힘을 모으고 있지요.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이 대표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 3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정 개칭…우주경쟁에 적극 나서야

화들짝 놀란 한국도 2021년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협약을 맺은 지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옆 나라 일본은 이미 협정의 목적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리거나, 달 궤도에 올려놓을 우주정거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 협정을 맺은 한국을 놓고 “돈만 뜯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나.

이 시점에서 우리도 관련 분야의 존재감을 키워야 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인재도 길러야 합니다. 다음 달 개칭하는 우리 우주항공정에도 큰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강대국이 마음대로 우주를 선점할지 모를 일입니다. 마치 19세기 말, 자기들 마음대로 본초자오선을 결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 노무, 특!

##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며 각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및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50인 미만 협력사들까지 포함해 ‘환경안전정기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일건설의 경우 안전대표이사(CSO)가 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지제역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현장을 2024년 1분기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하

기도 하였다.

준법은 ESG 경영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업들의 당면 과제이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 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인데,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안전보건 이슈관리가 어려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함께  
프로젝트



함께 크는  
희망

# 희망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 아닐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가족들과 함께

좌절을 딛고  
새로운 기회에 다시 가슴 뛰는  
청년들과 함께

각박해진 세상이라고 하지만  
묵묵히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장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은  
커져갑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인 '국민'  
KB가 '국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